

교육 훈련

- 002 ... “망명자를 소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 004 ... 웃웃을 벗어 주는 마음
- 006 ...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
- 008 ... SBS대상 수상 유감(有感)
- 010 ... 자원봉사자의 기쁨과 행복
- 012 ...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 014 ... ‘우리아이들’의 요즘 이야기
- 016 ... 탈북청소년선도문제
- 018 ... 겨울학교 개설 즈음하여
- 020 ... 탈북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 023 ... 인간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 025 ... 날로 증가하는 ‘우리 아이들’
- 027 ... 크리스마스 선물
- 029 ... 탈북청소년 교육
- 031 ... 케이트 날센 선생님
- 033 ...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를 마치고
- 035 ... 봉숭아와 버팀목
- 037 ... 통일 꿈나무들의 합창
- 039 ... ‘우리 아이들의 근황’
- 041 ... 탈북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 043 ... 탈북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취지
- 045 ... 탈북동포들의 영국행 열풍을 보면서
- 047 ... 탈북자는 이주민이 아니다
- 049 ...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의 업그레이드
- 051 ... 뷰티풀 드림 콘서트: 미래에 대한 투자
- 053 ... 우리의 딸 난희의 결혼식
- 055 ... 두 여고생의 탈북자 사랑 실천
- 057 ... 탈북대학생 오세혁 군의 경우
- 059 ...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원봉사자들
- 061 ... 통일을 준비하는 음악회
- 063 ... 탈북대학생 김은주 양의 다짐
- 065 ... 탈북대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소액장학금
- 067 ... 누가 “요즘 아이들을 철없다고” 하는가
- 070 ... 문타폰 보고관과 탈북청소년과의 만남
- 072 ... 탈북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 074 ... 세 탈북소녀의 밝은 웃음소리
- 076 ... 우리의 희망: 통일세대의 자각
- 078 ... 탈북청소년을 위한 계절학교를 마치고
- 080 ... SFS에서 열린 ‘북한인권의 밤’
- 082 ... 탈북대학생을 위한 판교 만찬회
- 084 ... 격오지 공군부대 순회 집중정신교육
- 086 ... 제8회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
- 088 ... 하늘을 나는 ‘미운오리새끼들’
- 090 ... 한 교포가정의 자녀교육
- 092 ... 프린스턴NKHR
- 094 ... 노(老) 탈북학자가 더 살고 싶은 이유
- 096 ...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탈북청소년들
- 098 ... 북한인권 청소년워크숍의 진화
- 100 ... 꿈을 이루어가는 탈북민 1.5세대
- 102 ... 탈북청소년들의 눈물
- 104 ... 한 탈북동포의 선물
- 106 ... 탈북청소년의 도전과 우리의 응원
- 108 ... 자라나는 우리의 차세대 활동가
- 110 ... 열한 살의 유서, 스물아홉 살의 꿈
- 113 ... 탈북청소년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
- 116 ... 먼 길을 돌아 만난 행복한 시작
- 119 ... 이성주 군, 캐나다를 거쳐 영국으로
- 122 ... 대통령의 탈북청소년 사랑

“망명자를 소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1996년 10월 어떤 모임에 참석한 한 귀순자는 “우리는 단지 배가 고파서 남한으로 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질문한다고 한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모멸감 같은 것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전체를 놓고 볼 때 북한 주민이 우리보다 못 먹고 사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식량난이 한두 해의 흉수 탓이라기보다는 주체농법이라고 하는 북한 당국의 농업정책에 기인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귀순자 중에는 지위나 직책에 따라서는 결코 우리 못지 않은 식생활을 해온 사람도 있다. 그리고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개인의 능력이나 연고에 따라서는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사회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귀순자라고 하면 무조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넘어온 사람으로 치부하니 그들이 모멸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와 제후관계를 맺고 있는 日 ‘북조선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의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제발 망명자들을 소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하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북한체제의 비인간성을 입증하는 산 증인들이 아니냐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귀순자의 존재 만큼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면 이들 귀순자들이 민족화해를 위한 우리측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이 통일됐을 때 누가 북한동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인가. 바로 이들 귀순자들이 아닌가. 김일성집단의 통치하에서 북한동포들이 어떻게 시달렸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들이야말로 민족화해의 첩경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제 국민대중이나 위정자 모두가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귀순자는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멀지 않아 다칠 남북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막아줄 우리측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1996. 11. 통권 5호 주장

웃옷을 벗어 주는 마음

필자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가곡의 하나가 '보리밭'이다. 목가적인 노래말도 좋지만, 선율이 더없이 아름답게 필자에게는 느껴진다. 음치인 탓에 제대로 부르지는 못하지만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이 노래가 흘러 나오면 곧잘 따라 부른다.

언젠가 작곡자 윤용하 씨에게 얽힌 얘기를 잡지에서 읽은 다음부터는 이 곡을 더욱 좋아하게 됐다. 어느 해였는지 모 신문사에서 수재민돕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어떤 남자가 편집국으로 들어오더니 입고 있던 웃옷을 벗어 주고서는 나가더라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맞춤옷을 입던 때여서 웃옷 안쪽을 보면 옷 입자의 이름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름을 확인하고 기자가 허둥지둥 쫓아가서 “보리밭의 윤선생이오” 하고 묻자 “그렇소” 하고 대답하고서는 휘적휘적 걸어가버렸다고 한다.

예술가에게는 가난이 의례히 따라다니던 시절이었으므로 이 웃옷은 그

의 유일한 나들이웃이였는지도 모른다. 그런 웃옷을 벗어 주는 것을 보면 그가 수재민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있었던 것 같다.

1997년 11월 11일 KBS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좋은 일이다. 많은 성금이 건혀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큰 사업이 활발히 전개됐으면 좋겠다.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탈북자를 돕는 작은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됐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소(小)그룹이 탈북자 개개인을 상대로 도와줄 때 마음이 통하고 정이 오고 가기 때문이다.

최근 본회 원호팀은 '탈북자와 나누어 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각 가정의 장롱이랑 다용도실에 보면 당장에는 쓰지 않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 가까운 의류·식기·가구 등이 많다.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원하는 탈북자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이 운동은 한 경찰관의 지원요청으로 시작됐다. 탈북자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른바 안가(安家)라는 곳에 일정기간 수용된다. 그 기간이 끝나면 영구임대주택을 배정받고 경찰관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우리사회에 적응해간다. 식기·의복·가구 등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탈북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정착지원금으로 사야 한다. 그런데 정착 지원금은 의외로 그 금액이 적다. 그러니 필요한 물건들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밥상이 없어서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라면을 먹고 있다고 하면서 그 경찰관은 본회에 지원을 요청해 온 것이다.

이 운동이 알려지자 많은 주부들이 호응해주고 있다. 웃옷을 벗어 주는 주부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분들에게 전해 지리라고 믿는다.

1997. 12. 통권 16호 주장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

1999년 9월 17일 전북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사람사랑 대공연'이라는 문화행사가 열렸다. 전북지역학생운동단체인 푸른공동체21과 전북지역총학생회협의회 그리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북한동포를 생각하는 밤', '푸른공동체21 초청강연',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행사의 부제는 '또 다른 나의 진보를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이었다. 그리고 ①전북지역 학생운동의 새로운 혁신과 정형을 세우기 위한 의기투합과 결의의 장이다. ②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생각의 공유와 통일로 한국진보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 ③국민에 신뢰를 받고 시민에 지지받는 학생운동의 모범을 창출한다. ④동포와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나누는 진정 국민과 함께하는 학생운동의 도덕성 회복과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등이 그 취지 및 목적으로 제시됐다.

사물놀이, 에어로빅댄스, 인기가수 공연 등 여느 대학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재중탈북자들의 영상을 담은 비디오가 상영된 사실과 탈북자 강철환 씨가 북한정치범수용소생활에 대해 증언한 사실은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푸른공동체21과 전북지역총학생회협의회는 지난 8월 10일 서울대학교 교정에 '북한 민주화만이 북동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플래카드와 북한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들의 수기를 담은 대자보를 게시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을 놓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는 "민족 화해협력의 원칙에 역행하는 반통일적인 태도다" 등의 찬반양론이 대학생들 사이에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찬반양론 중에 어느 쪽이 대학가 여론의 대세가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또다시 이런 문화행사를 개최한 것을 보면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이들이 결의가 이만저만 굳은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굳건한 결의는 행사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절도있는 자세에도 잘 나타나고 있었다. 때마침 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닐로 만든 비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대학별로 질서있게 자리를 지켰고, 흥이 나면 무대 앞으로 뛰어나와 손뼉을 치고 춤을 추는 등 행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운동방향과 다소 어긋나는 발언을 한 내빈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등 예의바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이 시종여일하게 질서와 에티켓 그리고 참여의 자세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북한 인권개선운동의 앞날이 무척 밝다함을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1999. 10. 통권 34호 주장

SBS대상 수상 유감(有感)

2000년 5월 24일 본회는 SBS문화재단이 제정한 모범사회활동대상을 수상했다. 상패와 함께 부상 1천만원이 전달됐다. 상패에는 “건강하고 살기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어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한다”고 쓰여 있었다.

이에 앞서 SBS문화재단 담당자는 본회가 대상을 받게 됐음을 알려오면서 “활동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단체 또는 그룹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이 상이 마련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 담당자의 지적과 같이 본회의 활동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북한의 인권상황, 특히 소위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것을 본회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동포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

으려면 무엇보다도 관리소라는 비인간적 제도가 북한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 우리는 그동안 국내홍보 보다는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더 중시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러시아·중국 등지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국내에 이미 들어온 탈북자 역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시작된 게 재외탈북자구호사업과 국내거주 탈북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다.

“꼭 필요한 일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SBS의 칭찬은 물론 모든 회원과 실무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필자는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들이야말로 이런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요즘의 대학(원)생은 이만저만 바쁜 게 아니다. 것처럼 바쁘데도 이들은 최소한 3개월간 토요일마다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을 방문, 하룻밤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상담에 응하고 또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퇴소한 탈북자를 책임진 자원봉사자들은 적어도 주1회 그 가정을 방문하고 본인 또는 자녀의 학습지도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 6개월간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있다. 이런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겨레의 미래는 밝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00. 6. 통권 41호 주장

자원봉사자의 기쁨과 행복

필자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서 우리나라가 선진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한편, 공공행사나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외국인인 우리가 볼 때에도 감동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로 88올림픽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고, 지금도 장애인돕기·무의탁노인돕기 등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결코 적지 않다. 불우한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이런 가특한 분들이 있기에 우리사회가 그런대로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 자원봉사활동을 전공하는 한 사회복지 전문가에게서 “자원봉사활동이란 비를 맞고 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매우 적절한 표현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 모임에는 대학(원)생 자원봉사자들이 많다. 그들은 바쁜 학창생활 가운데서도 틈을 내어 하나원(탈북자교육시설)을 방문하고, 탈북자가정을 방문해 청소년의 학습을 지도하는가 하면 멀리 중국으로 건너가서 탈북청소년들을 위로·격려하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는 1년 이상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무엇이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처럼 열심히 하게 만드는가” 하고 필자는 자문해볼 때가 있다. 학업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필자는 대학(원)생 자원봉사자들이 때때로 써내는 감상문에서 그 해답을 찾은 것 같다. 한 여학생은 학습지도를 맡고 있는 소년과 함께 부근의 가게를 들렀을 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가게 주인이 나에게 대해 문자 밝은 표정으로 누나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 여학생은 그 소년이 자신을 가족과 다름 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데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한다. 또 2000년 8월, 2박 3일의 경주탐방을 마치고 헤어질 때 눈물을 글썽이면서 손을 놓지 못하는 북녘 땅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보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말하는 자원봉사자도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드는 것은 이런 작은 감동과 행복감이 아닐까. 일찍이 법정(法頂) 스님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고 갈파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자원봉사활동을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봉사자 자신들인 것이다.

2000. 9. 통권 43호 주장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내일 지구가 파멸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의미심장한 명언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련한 일일 수 있다. 사과나무의 경우 묘목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4, 5년이 걸린다. 오래지 않아 지구가 파멸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심은 사과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말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살아남을 사람들을 위해 묘목을 심는 것이라면 그는 사려가 여간 깊은 게 아니다. 개인의 운명보다도 인류공동체의 미래를 더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2001년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청소년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로 탈북자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는 청소년 26명이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제반 여건으로 보아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게 당국자의 의견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의 수도 결

코 적은 게 아니다. 당국자·국민 모두가 이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몇몇 교육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학업성적은 대체로 그다지 우수한 편은 아니다. 잘해야 중위권이고 거의가 하위권이라는 것이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교과과목이 다르고 교과내용이 다른 곳에서 공부하다가 왔으니 어떻게 쉽게 성적이 좋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많은 경우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수 년을 제3국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 책상머리에 차분히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역일 것이다. 또 동급생과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나이는 열여덟인데 북한에서 중2를 중퇴했다면 다시 중2로 편입, 3, 4세 연하의 동급생과 함께 공부하게 되니 말이다.

최근 또다시 우리사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과외열풍도 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단신 넘어온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함께 넘어온 경우에도 이들은 과외지도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판국인데 무슨 수로 그 비싼 과외학습비를 댄다는 말인가.

탈북청소년 중에는 중고등과정을 불과 1년 2개월만에 마친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도 있다. 그리고 대체로 탈북청소년의 향학열은 매우 높다. 중국에서 숨어지내면서도 영어단어를 외우고 컴퓨터를 배운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일(통일의 날)을 생각한다면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이들 탈북청소년들에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2001. 3. 통권 48호 주장

‘우리아이들’의 요즘 이야기

우리가 중국에서 보호하고 있던 탈북청소년 5명이 2000년 가을에서 금년 봄에 걸쳐서 입국한 사실은 이미 소개된 바 있다. 5명 중 3명(정섭, 신혁, 국화)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늦게 입국한 2명(원이, 은철)은 아직도 하나원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3명 중 국화는 하나원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정섭·신혁은 모 직업전문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다.

천주교 수도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직업전문학교는 원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남한 청소년에게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생에게는 정부로부터 월 2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본인이 성실하게만 학습하면 1년 후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력미달자를 위해 학교당국은 방과후에 각급 검정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 3월 이 학교에 입학한 정섭이와 신혁은 매우 열심히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이 두 사람 이외에 용호가 예비반에서 내년도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두 사람은 낮시간에는 똑같이 기술을 배우고 있지만, 밤이 되면 정섭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반에서, 신혁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반에서 공부한다. 북한에서의 수학경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한에 피붙이가 전혀 없고, 학력도 낮은 이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기술을 배우는 게 최상의 길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원에 있는 원이와 은철도 이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놓았다.

가을이 되면 원이는 여동생 순이를 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지난 겨울 중국에 살다가 북한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간 순이는 다시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제3국에 와서 우리나라 공관에 보호를 요청해놓고 있다. 가을에는 한국행이 실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관측이다.

순이가 중국에서 겪은 일을 보면 탈북여성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녀를 ‘보호’ 하고 있다는 한 조선족 남자가 우리의 현지 협력자에게 전화를 걸어오면서 순이의 몸값 1백 50만원을 요구했다. 순이가 어리고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돈만 받고 넘겨주겠다고 선심을 쓰듯 말했다고 한다. 곧 몸값이 송금됐다.

7월 6일 제3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순이의 전화를 받은 원이는 목이 메어 아무말도 못했다고 한다.

2001. 7~8. 통권 52호 권두언

탈북청소년선도문제

우리가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인지도 2년이 지났다. 이 일에 처음 참가한 것은 고려대생 11명이었다. 이들은 탈북자가정 다섯 집을 매주 한 번씩 방문하고 청소년 8명의 학습을 도와주었다. 당시만 해도 그 일을 통해서 부모와 친숙해지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선 생업에 쫓기는 아이들 부모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설사 만난다고 해도 깊이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령의 차이,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것을 막은 것이다. 이 일 때문에 당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이만저만 고민했던 게 아니다.

그 과정에서 탈북청소년 본인들의 사회적응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쉽지 않다는 게 파악됐다. 그들은 아직도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인 관계로 정규학교 또는 사설학원에 다녀야 하는데 우선 교사(강사)의 말을 절반밖에

알아듣지 못한다. 억양이 다르고 낱말의 뜻이 다르며 외래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사투리는 곧잘 학우들의 놀림감이 되곤 한다. 유행이나 연예계 정보에 어두운 것도 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해서 학우들의 대화에 쉽게 끼어들지 못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탈북청소년의 상당수는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 주변부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게 파악된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의 활동 목표가 크게 바뀌었다.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도를 통해 부모들의 신뢰를 획득하자는 것에서 청소년 본인들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몇몇 탈북청소년의 일탈행위(폭력·범죄·자살)가 목표 변경의 한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최악의 경우 이들이 마피아화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까지 하게 됐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수련회를 열어서 남한 대학생을 교육시킨 다음 가정방문 학습지도·1대1 생활지도·하나원 토요프로그램 등에 투입해 온 것이다.

2001년 8월 3일에 시작해서 23일에 끝난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 여름학교'는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우선 탈북청소년 자신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힘든 전과정을 마친 데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현직 교사와 대학생 역시 하루가 다르게 생활태도가 건설해지고 학습의욕이 높아지는 탈북청소년들의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 것이다. 곧 겨울학교 개설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 같다.

2001. 9. 통권 53호 권두언

겨울학교 개설 즈음하여

2002년 1월 3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 겨울학교’가 개설된다. 여름학교(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특별학습지도 프로그램이다.

여름학교에서 공부한 탈북청소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교사·대학생들이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쳤으니 그럴 만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가장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은 탈북청소년들이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알게 됐고, 또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사실이다.

우등상을 받은 한 소년은 “집단생활에 대해서 배우며 지켜야 할 사항과 예절을 배웠습니다. 또 서로를 존중하며 상대방 입장으로 바뀌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게 됐습니다” 하고 말했다. 어른들조차 역지사지(易地思

之)할 줄 모르는 판국에 이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인가.

우등상을 받은 또 한 명의 여학생은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친구들과 사귀는 것, 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도 세상에는 나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학교에 와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어린 소녀가 그동안 얼마나 세파에 시달렸기에 이처럼 인간과 사회를 불신하게 됐을까 하는 측은한 생각이 저절로 든다. 어쨌든 자원봉사자와의 사귀음을 통해 인간불신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사실, 이들 탈북청소년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이 곳 남한 땅으로 온 사람이어서 의지가 강인하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이미 박사학위 소지자도 나왔고, 한의사도 배출됐다. 그리고 여러 명의 의과대학 재학생도 있다. 게다가 이들의 향학열은 대체로 높다. 그러니 탈북청소년교육문제는 고급인력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때 남한을 점령한 북한측이나 북한을 점령한 남한측이나 똑같이 현재사정에 어두운 자기 지역 사람들을 행정관으로 파견함으로써 민심 파악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또 다시 우리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의 흐름으로 보아 자유민주체제하에서의 통일이 불가피할진대, 지금부터 우리는 탈북청소년을 차세대 북한엘리트로 키워야 할 것이다.

2001. 12. 통권 56호 권두언

탈북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2002년 한겨레 겨울학교에서 공부하는 탈북청소년들이 독거노인 댁을 방문, 쌀과 꿀을 전달하고 방안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쌀과 꿀은 사회복지관이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 사회의 떳떳한 성원이 되려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는 게 프로그램의 취지였다. 첫번째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 써낸 감상문을 보면 탈북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것 같다. 모두가 한결같이 “어른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한 소녀는 독거노인 댁에서 느낀 바를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곰곰이 앉아 생각을 해보았다. ‘혼자 사는 이 할머니는 얼마나 외로울까. 또 거기가 다리까지 편찮으시니…….’ 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해 드리는 내가 한스러웠고 미웠다.”

그런가 하면 한 소년은 자식들이 그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노인의 자식들에게는) 이렇듯 부모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지, 어찌하여 이렇게 노인을 박대하는지 궁금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준 것이 없는지, 정말 그렇게 자식의 도리를 못하고 부모를 학대하며 자신의 자식이 그것을 본받아 자신을 학대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북녘 땅에 두고 온 청소년들이 독거 노인을 보면서 그분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북한에는 나의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신다. 할머니 두 분이 여기에 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슬그머니 북한 생각이 떠올랐다. 할머니 두 분은 식량곤란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필자는 중국에 다녀온 한 회원이 전해준 이야기를 머리에 떠올렸다. 탈북 소녀가 “내년은 우리 할머니 환갑인데 잔치상도 차려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울더라는 것이다. 핵가족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경로사상이 북녘 땅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듯해 약간의 위안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의 일이고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형편없다는 게 한 소녀의 글에서 알 수 있다. “서울에는 구(區)마다 이런 복지관이 있어 늙고 병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장애인을 돌보는 것을 보면서 언제면 우리 북한에도 이런 곳이 세워질까 하는 바람의 마음이 더욱 더 간절하게 안겨왔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조국이 통일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손으로 북한 인민

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2. 1~2. 통권 57호 권두언

인간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한국전쟁은 이 땅에 많은 전쟁고아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새로운 부모를 만나기 위해 미국·스위스·독일·스칸디나비아 제국 등지로 떠났다. 유감스럽게도 해외입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해외입양아의 수가 약 14만 명이라고 하니 무심히 보아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성장한 입양아 출신 중년 여성이 남편과 함께 고국을 찾아와 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어릴적의 기억으로 인해 인간을 싫어하게 됐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게 없는 이 여성이 인간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에게 희망을 걸어 본다.

2002년 5월 중순 국내 한 신문에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의 외로운 처지에 관한 기사가 게재됐다. 텅빈 방에서 홀로 지내야 하고, 또 동급생들에게 왕따당하기가 일쑤여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 기사에 김영자 사무국장의 담화가 실려 있어서 한동안 많은 문의전화와 본회로 걸려 왔다. “무연고 탈북청소년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고 묻는 전화였다. 개중에는 양자로 삼아 한 집에서 데리고 살겠다는 분도 있었다. 탈북동포를 이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은 여간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대로 말해 그동안 우리의 웹사이트에는 탈북자의 입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글이 종종 올라와 마음이 언짢았다. “탈북자들이 정착하는데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남한 국민들의 혈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통일이 되기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남북한 모두 같이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탈북자를 왜 도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이 그런 글이다.

물론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글도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를 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또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룬 탈북자의 정착에 착오가 생긴다면 과연 이 땅의 전쟁 위기는 언제 가실 것인가. 어떻게 탈북자가 반갑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탈북자의 수기를 한번 읽어보라. 굶주림을 피해 중국에 왔지만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하는 탈북자를 인간으로서, 동포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사는 한 인간으로서 인간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탈북동포돕기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의의는 그 다음에 논의할 문제일 것이다.

2002. 6. 통권 61호 권두언

날로 증가하는 ‘우리 아이들’

2001년 여름까지만 해도 우리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탈북청소년은 정섭·신혁·국화·원이·은철 등 5명이었다. 가을에는 원이의 여동생 순이(17세)가 제3국에서의 대기생활을 마치고 입국했다. 현재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순이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있을 때 필자는 여성 자원봉사자와 함께 그 애를 만나러 갔다. 몸집이 자그마하고 귀엽게 생긴 아이였다. 왜 집에서 뛰쳐 나왔는지. 오빠를 잃고 혼자 중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또박또박 들려 주었다. 그때 열네살이었는데 짙은 화장을 하고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선의 딸들’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2년 8월 6일에는 또 한 사람의 ‘우리 아이’ 난이(23세)가 하나원에서 퇴소한다. 노래방의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다가 지난 5월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착하고 순진한 전형적인 '조선의 딸'이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새로운 '우리 아이들' 셋이 제3국에서 부모와 함께 입국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 있을 때 그들을 만나보고 온 회원에 따르면 평양 출신이고 부모의 보살핌을 잘 받은 관계로 영양상태는 한국의 청소년과 비교하여 별로 손색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인 것 같다.

2002년 6월 15일 중국 모처로부터 본회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옥화(21세)라고 합니다. 청진에 살았는데 부모님, 오빠가 병으로 누워 있고, 더 이상 굶고 있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다섯 번이나 팔려 다녔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통곡하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은 사무국 직원도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곧 현지 협력자에게 기별이 갔고, 현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현지로부터 온 소식에 따르면 옥화는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 상당 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듯하다. 우리는 한 국제의료봉사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동양인이 아닌 사람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만나 치료해준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는 한국인 의료요원이 나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독지가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는 귀수불심(鬼手佛心)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기술은 귀신 같고 마음은 부처같다는 말이다. 우리의 의료인들이 탈북 여성들에게 그들의 인술을 베풀어주었으면 한다.

2002. 7~8. 통권 62호 권두언

크리스마스 선물

2002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사무실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도 훈훈했다. 생각지도 않던 선물이 연이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 선물은 2002년 12월 24일에 전해졌다. 이북 5도청에서 열린 탈북민지원행사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이름으로 주는 국민포장이 이사장에게 전달됐다. 이날 17개 단체 대표에게 상이 주어졌는데 그중에서도 훈격이 가장 높은 상이었다. 임직원, 회원,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쏟아온 노고와 정열에 대한 국민의 칭찬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두 번째 선물은 2002년 12월 26일에 전해졌다. 중국에서 우리가 구출한 민철(가명)이 이날 고려대 학교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었다. 지난 4개월간 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이 마침내 좋은 결과를 맺은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해준 '국경없는 의사회(MSF)'

의 소피 들로네이 씨와 마린 소니 씨, 후원금을 보내준 분들, 한사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심완주 교수와 선경 교수, 의료비를 지원해준 한국일보사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세 번째 선물은 2002년 12월 28일에 들어왔다. '우리 아이들' 중 한명인 신혁이 킁킁거리며 들고 온 과일상자였다. '우리 아이들'이란 중국에서 은신하고 있을 때부터 우리의 도움을 받아온 탈북청소년을 가리킨다. 신혁은 우리의 도움으로 2000년 10월 6일에 입국했고, 우리의 안내로 1년간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수학, 2002년 2월 기능사 자격증과 함께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 그 후 1년간 기초학력을 다진 다음, 최근 모 대학교 중국어학과에 합격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마다 우리의 마음이 여간 흐뭇한 게 아니다.

2003년 1월 4일 제4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가 문을 연다. 청소년 26명이 현직 교사·대학생 자원봉사자와 함께 21일간 숙식을 함께하면서 기초학력을 다지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그리고 탈북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교사들이 연구회를 경성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설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지난 7년간 우리가 남긴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언젠가 이루어질 민족통일의 날을 대비, 올 한해의 사업을 구상해야겠다.

2003. 1. 통권 67호 권두언

탈북청소년 교육

2003년 1월 24일 제4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가 끝났다. 민족자존(民族自尊)이라고 쓰인 비석 앞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청소년들을 귀가시켰다. 필자는 정문 앞에서 청소년들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좀처럼 오지 않았다. 교사·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헤어지기가 싫어서 청소년들이 마냥 미적거렸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눈물을 툭툭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정에 굶주린 터라 어찌 그러지 않겠는가.

수료식 전날 밤에 사은회가 열렸다. 장기자랑 때 한 소녀가 중국노래를 유창하게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의 중국생활을 상상해 보았다. 김문이 무서워서 외출하지 못하고 방안에서 나지막하게 중국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아니면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그 노래를 배웠을 것이다. 중국의 노래방은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던데 어떤 생활을 보냈을까.

또 한 소녀는 시를 낭송했는데 고향에 두고 온 동생을 그리는 내용이었

다. 아프지는 않았는지, 끼니는 거르지 않고 있는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 하고 이어지고 있었다. 평소에는 장난도 치고 깔깔 웃어대기도 하지만, 그들 모두가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수료생 27명 중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청소년의 숫자도 결코 적지 않다. 그들은 미성년자인 관계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배정되지 않는다. 성년이 될 때까지 청소년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어야 한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다시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이들의 발길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 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여서 학교 또는 학원에 다니는데, 교사나 동급생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준다는 것이다. 천재가 아닌 이상 전에 배우지 못한 것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급생이 그러는 것은 철없는 아이들의 일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가려는 것은 결코 수공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그만큼 북한의 교육사정에 대해 어둡다는 것을 뜻한다.

제4회 한겨레계절학교를 마치면서 탈북청소년을 가르치는 데 참가한 교수·교사들이 탈북청소년교육연구회를 결성한 것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반성 때문이었다. 이 연구 활동이 진정한 민족통일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을 기원해 마지 않는다.

2003. 2. 통권 68호 권두언

케이트 닐센 선생님

케이트 닐센 선생님은 본회가 주최한 제5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에서 영어회화를 담당한 캐나다 여성이다. 일본 지방도시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방학기간 중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방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청소년들과 숙식을 함께했다.

처음 개학을 2개월 앞두고 계절학교에서 청소년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녀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 필자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래 탈북자문제가 세계 언론에서 자주 다루어지면서 탈북자와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외국인으로부터 적잖게 받는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언론에 종사하거나 난민문제 연구가들이다. 말하자면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 그런 요청을 해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겪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닐센 선생님은 개학 9일 전에 서

울에 도착, 우리 사무실에서 교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첫날부터 청소년들과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통일교육원측의 사정으로 처음 3일간을 지방의 청소년수련관에서 보내야 했는데, 전혀 싫은 기색 없이 동행해 준 것이다. 정상수업이 시작한 후에도 그녀의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자기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교무실에 머물러서 교재를 준비하고, 수시로 찾아오는 청소년들과 대화하거나 숙제를 검사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런 자세는 한국인 정교사·보조교사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녀가 청소년들에게 남긴 메시지에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 있었다. “애들아, 안녕. 이번 여름학교에서 우리가 3주 동안 공부도 하고 놀이도 했는데 재미있었니? 너희들이 올여름 이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부디 그 친구들이 너희들 인생의 보물이 되기를 바란다. 비록 여름학교는 끝났지만, 너희들끼리 다시 만나 함께 놀거나 또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하나하나가 모두 나에겐 특별하다. 너희 모두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모두들 수고했다. 이번 여름학교에서처럼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 또 만나자.”

닐센 선생님은 2004년 1월로 예정된 제6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에도 참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디 그녀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

2003. 9. 통권 74호 권두언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를 마치고

2005년 6월 24일 1박 2일에 걸친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가 끝났다. 중·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프로그램은 오래 전부터 실시해왔지만, 탈북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자의 상당수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 프로그램에서 만난 얼굴들이고, 그중 몇 명은 중국에서 데리고 온 ‘우리 아리들’이다. 이들이 어느덧 잘 자라서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필자는 이들이 과연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했는가. 그리고 경쟁력을 얼마만큼 갖추어 가고 있는가를 관찰했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자신이 북한인인가 남한인인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비록 남한에 와서 새로이 호적을 만들고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지만,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가 하고 느껴

질 때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더러는 고향을 속이고 또 남한의 저급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한다.

그러나 이번 리더십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이미 정체성의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 같았다. 어디서나 자신이 탈북자임을 떳떳이 밝힐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자신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북한의 그 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도 매우 의욕적이었다. 탈북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의 하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는 점인데, 그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 같았다. 재학기간 중에 해외로 어학연수를 받으러 떠나겠다, 또는 졸업 후 유학을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지방대학을 마친 다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근 일류기업에 입사한 한 탈북청년은 뻣뻣한 자신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달려와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북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중국을 떠돌면서 배운 중국어 실력이

자신의 직장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들려주면서 용기를 북돋운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해서 다가오는 통일의 날을 대비해야 하겠다.

2005. 7~8. 통권 94호 권두언

봉숭아와 버팀목

사무실 뒷문을 열면 코앞에 비상계단이 있는데, 어느 건물 비상계단처럼 빈 석유통·오래된 화분 등 잡동사니로 지저분하다. 지난 초여름에 그것들을 모두 치우고 아주 자그마한 화단을 한쪽 구석에 만들어 보았다.

벽돌 두 장씩을 포개어 테를 두르고 빈 공간을 부엽토로 채운 다음 봉숭아 씨를 심었다. 정성스레 물을 주었더니 싹이 났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다. 오랜만에 해보는 일이어서 신기하기만 했다.

어느 날 아침 뒷문을 열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나의 봉숭아들이 일제히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밤새 내린 비로 줄기가 꺾인 것이다.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서 버팀목을 대주었다.

날이 가면서 줄기는 굵어졌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았더니 꺾였던 자리는 검붉게 변해 있었고 다른 부분보다 더 굵었다. 줄기 속에서 수액이 흘러나와 상처를 아물게 한 게 분명했다. 어쨌든, 봉숭아

는 튼튼하게 자랐고 여름 내내 꽃을 피웠다.

필자는 봉숭아를 보면서 한국으로 들어온 많은 '조선의 딸들'을 생각했다. 중국을 떠돌면서 온갖 겪을 일 못 겪을 일을 겪었으면서도 과거를 훌훌 털어 버리고 열심히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다.

2002년 우리의 도움으로 이 땅에 온 옥화(가명, 24세)가 그 좋은 본보기이다. 2002년 6월 15일 아침 중국 모처로부터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청진에 살았는데, 부모님 오빠가 병으로 누워있고, 더 이상 굶고 있을 수 없어서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곳저곳으로 팔려 다녔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듣고 사무국 직원도 함께 울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옥화가 다시 일어서는 데에는 2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물론이고 여러 수녀님들과 정신과 의사·외국인 심리치료사들이 옥화의 버팀목이 돼주었다. 최근 친구와 함께 우리 사무실을 찾은 옥화는 표정도 밝았고 건강도 좋아보였다. "인편을 통해 보낸 돈으로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 오빠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의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듯 했다.

옥화와 그 친구가 돌아간 다음 뒷문을 열고 꿀벌들이 봉숭아꽃 사이를 분주히 날아 다니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 보았다.

2005. 9. 통권 95호 권두언

통일 꿈나무들의 합창

'우린 해낼 수 있어/다시 일어날 수 있어/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가요 '하나 되어'의 후렴이다.

2006년 8월 18일 제11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 학예회 때 교사·학생·내빈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 노래를 몇 번씩 목청껏 불렀다. 탈북청소년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그들을 향한 우리 모두의 사랑이 이 노래에 절절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라는 노랫말 첫 구절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탈북청소년은 없다. 배고픔·추위·수치감·두려움·부모형제를 향한 그리움 등 탈북 과정에서 겪은 온갖 일들과 느낌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전문가의 치료를 받기도 해야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이해와 보살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한다. 한겨레계절학

교에서는 젊은 자원봉사 교사들이 바로 그 일을 그동안 잘 담당해왔다.

이번 한겨레계절학교를 통해 필자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다. 이 나
이 어린 탈북청소년들이 여간 당차지 않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언제 그것을
느꼈느냐고 하면 서울 변두리의 고등학교 1학년생들과 함께 조를 짜서 도심
의 고적·명소·시장 등을 찾아가, 현장을 답사하고 물품을 정해진 금액으로
사오라는 과제를 내주었을 때다.

정해진 시간에 숙소에 돌아와서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데, 탈북청소년들이 남녘 출신의 청소년들을 단연 압도하는 것이었다.

남녘 출신의 청소년들은 처음 가보는 곳이어서 찾기도 어려웠다니, 더
워서 힘들었다는 거 하고 어려움만 호소했는데, 탈북청소년들은 대체로 거뜰
하게 과제를 수행했음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하기가 여권도 없이 여러 나라
국경을 넘어 한국까지 온 청소년들이니 시내탐방이 어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수업 개시 전에 전날에 배운 것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서 발
표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결같이 능숙하게 발표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익숙
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영어나 수학에서 남녘 청소년들에게 크게 뒤떨어
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필자도 이들 통일꿈나무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갖고 노래를 불렀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희망의 미래를 향해/우린 해낼 수 있어/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고.

2006. 9. 통권 105호 권두언

‘우리 아이들의 근황’

‘우리 아이들’이란 그들이 중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돌보았다든지, 사무국
식구나 자원봉사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을 가리킨
다.

이 말은 7년 전인 2000년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중국 공안에 잡혀갔
습니다.” 하고 중국에 있는 협력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사무국으로 전화를
걸어온 데서 유래한다.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김영자 사무국장이 자원봉
사자 두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 은신중인 탈북청소년 다섯 명을 만난 일이
있었다. 여러 날을 함께 지낸 관계로 서로 정을 느끼게 됐는데, 그들 중 네
명이 잡혀간 것이다. 다행히 남자아이 두 명은 도망쳐 나왔고 두 명은 협상
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재외 탈북자 돕기가 시작됐다. 그 해 연말과 이
듬해 초에 걸쳐서 이들 다섯 명은 무사히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들이

바로 원이, 신혁, 정섭, 은철, 국화이다.

원철은 2008년 2월 한양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데, 그동안에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탈북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캠프에 열심히 참가하고 있고,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대학생인식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혁은 최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을 졸업하고 치기공사로 취직해 잘 다니고 있다. 그의 누나도 상주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다.

정섭은 컴퓨터가게를 차렸다고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다. 은철은 삼육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리더십캠프에도 열심히 참가 하였다. 국화는 착한 남자를 만나서 딸을 낳아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

2002년 전 우리의 도움으로 국내에 들어 온 난이는 그리스도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곧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원이와 함께 있던 혁철이는 남동생을 데려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원이가 다니고 있는 한양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원이, 혁철과 함께 서울의 직업전문학교에서 수학한 명진이도 한양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므로 내년 2월에는 이들 세 명과 난이가 동시에 졸업하게 된다.

2006년 9월 우리의 도움으로 국내에 들어온 인철, 은희, 은화, 은주는 2007년 5월에 실시하는 검정고시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의 관심 속에서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2007. 3. 통권 110호 권두언

탈북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2007년 8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김영의 홀에서 열린 ‘뷰티풀 드림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 콘서트는 통일꿈나무 육성기금 마련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 연구원·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사단법인 뷰티풀마인드·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한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출연자·비디오 제작자·사회자·행사 요원 등 모든 관계자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했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탈북청소년 돕기를 시작한 것은 1999년의 일이다. 이때부터 사전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자 가정을 방문해 청소년의 학습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교육에서도 꾸준히 참여해왔다. 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와 대학생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3주간 진행되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계절학교’도 2001년 이래 매년 두 번씩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

램을 통해 탈북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정규학교에 다니는데, 중도 탈락률이 남한 출신 청소년의 10배가 넘는다. 이 사실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탈북청소년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어디 그들만의 책임인가. 우선 한국에 와서 배워야 하는 교과목이 북한의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은가.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학교생활이 크게 부실해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게다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허송한 사실도 고려돼야 한다. 또 남한에 들어와서도 교사·동급생·이웃 사람들의 결코 따뜻하지 않은 시선도 탈북청소년들의 학습 의욕을 크게 감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해에 걸쳐서 탈북청소년 사회 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천해본 결과 대부분의 탈북청소년은 학습의욕이 매우 왕성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기만 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뷰티풀 드림 콘서트'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선보인 사물놀이가 좋은 본보기다.

그 무렵 그리스도대학교에서 제13회 탈북청소년을 위한 계절학교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난생 처음 배운 사물놀이를 실수 한 번 없이 훌륭하게 연주해 낸 것이다.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해낸 것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탈북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요, 통일 꿈나무인 것이다.

2007. 9. 통권 115호 권두언

탈북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취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3백88명이 대학(2년제 포함)에 다니고 있으며 국고지원을 받고있다. 학기당 수백 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으니 상당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알고보면 그들의 학창생활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우선 교재·참고서를 사는 데 목돈이 들어가고, 교통비·점심값·동아리 회비도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조비로 영구임대 아파트의 월세·관리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된다. 여학생일 경우 옷값·화장품대도 결코 만만치 않다.

탈북대학생의 상당수는 홀몸으로 왔기 때문에 어디 기댈 데가 없다. 부모 형제가 있는 경우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절반가량만이 직업이 있는데 평균 월수입이 백만 원 이하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교육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

형편이 이러니 탈북대학생의 대부분은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에 나설 수밖에 없다. 남한출신 동급생에 비해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에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다 보니 학과성적이 좋을 수 없다. 많은 탈북대학생이 중도에 탈락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마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또 게을러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를 실시,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리더십연수 전문가·변호사·기업 인사담당자 등 각계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수료생 한 명이 2008년 3월에는 미 국무부가 실시하는 방미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세계 각국에서 뽑혀온 젊은이들과 함께 3주간 미국에서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사실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는 탈북대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다. 우선 학업성적이 좋아야 하고, 영어도 웬만큼은 할 줄 알아야 한다. 해외연수가 아니더라도 순탄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남한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상자를 돌보아주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뒷배 보아주기’가 될 것이다.

인생살이를 가르쳐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용돈도 대어주는 것이다. 이미 괜찮은 탈북대학생 5명이 결연됐다. 좀 더 많은 뜻있는 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주시기를 기대한다.

2007. 11. 통권 117호 권두언

탈북동포들의 영국행 열풍을 보면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동포들이 다시 짐을 짊어 다음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지도 오래다.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을 무렵 수백 명이 멕시코, 캐나다의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대부분은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송환 당했고, 요행히 밀입국에 성공한 경우에도 살기가 힘들어 자진해서 귀국한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탈북동포들 사이에 영국행 열풍이 불고 있다. 올 한해만 해도 3, 4백 명이 영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떤 소식통은 1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동포 열 명 중 한 명이 영국으로 갔다는 말이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동포라고 해서 한국을 떠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들이 한국에 정착한 사실을 숨기고 난민으로 신청한다는 사실에 있다.

악덕브로커들이 외국사정에 어두운 탈북동포들을 감언이설로 꼬드겨서 위장난민 신청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침내 주한영국대사가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의 이민·망명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곧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영국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영국의회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위장난민신청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탈북동포들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람으로서는 심정이 착잡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고, 민간단체 종사자들은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07년 12월 10일 경인발전연구원과 함께 정책심포지엄을 개최, 탈북자 보호·정착지원 정책을 점검해 본 것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많은 의견이 제시 됐지만, 정부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공통점이었던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정착지원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만 명의 탈북동포조차 정착시키지 못하면서 남북통일을 외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버마재비가 수레를 향해 앞다리를 드는 격이라고 하겠다.

2008. 1. 통권 119호 권두언

탈북자는 이주민이 아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이제 1만 3천 명에 달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집중됐지만, 근년에는 웬만한 지방 도시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동안 그들의 호칭이 여러 번 바뀌어 왔다. 월남자·실향민·귀순자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약칭 탈북자)으로 굳어지는 듯하더니, 2005년 통일부는 ‘새터민’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이 정치색이 강해 남북협력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탈북자 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새터민이라는 말에는 다른 고장에서 살다가 이사 와서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처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래 일부 연구자와 사회복지 관계자 사이에 “탈북자를 이주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탈북 동기가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데 착안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요즘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이주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다. 이주민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처벌을 당하지 않고 또 두고 온 가족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탈북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탈북자의 경우 한결같이 자신의 얼굴이나 본명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나 일가친척 또는 친지들이 피해를 당할 것을 막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가족·일가친척·친지조차 그럴진대 본인이 어쩌다가 돌아갔을 경우 박해를 당한다고 함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비타민 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탈북 당시 비정치적인 이유로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탈북자는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에 해당된다고 한다. 게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즉 전통적인 의미의 난민도 적지 않다는 게 특별보고관의 견해다.

이주민설이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주민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어려운 국적취득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탈북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버지·할아버지가 한반도에 거주한 한민족임이 확인만 되면 따로 국적취득절차를 밟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말이다.

위에 열거한 두 사실만으로도 탈북자는 외국으로부터 유입한 이주민(이민)이 아님이 분명하다.

2008. 5 122 권두언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의 업그레이드

〈맹자〉에 보면 군자의 세 가지 낙(樂)이 열거돼 있다. 첫째 부모가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둘째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 셋째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다.

요즘 필자는 군자의 삼락 중 셋째 낙을 누리고 있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남한출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을 벌여온 지 2008년 현재 10년째가 되는데,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을 열거하면 ①가정방문 학습지도 ②하나원 청소년프로그램 ③하나되는 나들이 ④계절학교 ⑤탈북대학생 리더십캠프 ⑥토요학교 ⑦L4 축구팀 운영 등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간 탈북청소년을 모두 합치면 수백 명에 달하는데, 그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도 적지 않다. 그리고 대학이나 정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에도 낙오하지 않고 착실하게 수학하고 있다.

2008년 6월 25일부터 3박 4일간 실시된 제4회 탈북대학생 리더십캠프 참가자의 3분의 2가 계절학교 출신인 것을 보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3주간 실시되는 계절학교가 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비행청소년 서클에 몸담고 있다가 계절학교에서 사귀 친구나 남한 출신 대학생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고 상급학교에 진학, 교내 논술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경우를 보면 인성도야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요즘에 와서 필자는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란 학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통일 시대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는 말이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탈북대학생 리더십캠프 참가자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우수했기 때문이다. 수강자세도 진지했고, 질문수준도 매우 높았다. 강사 한 분은 한국대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번 강의해보았지만, 이처럼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놀라워했다. 모의입사시험에서 영어나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거뜬하게 하는 참가자도 적지 않았다.

계절학교 수료자 가운데 중등학교에서 우등생·반장으로 뽑힌 청소년들이 몇 년 후에는 대학생이 될 터인데, 그때의 탈북대학생 리더십캠프는 지금 이상으로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우수한 탈북청소년들에게 법학대학원·경영대학원 등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 같다.

2008. 7. 통권 124호 권두언

뷰티플 드림 콘서트: 미래에 대한 투자

오는 8월 15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2008 뷰티플 드림콘서트'가 열린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사)뷰티플 마인드(이사장 한승주)·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원장 서창록)·이화여자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대석)과 함께 여는 탈북청소년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자선음악회이다.

첫 번째(2007년) 콘서트 수익금의 66퍼센트는 겨울방학 때 실시된 '제 14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의 운영비로 쓰였다. 해마다 1월에 실시되는 계절학교는 아무데서도 지원받지 못해 늘 어렵게 운영돼왔다. 그랬던 게 지난 겨울에는 큰 어려움 없이 치를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취학연령에 달한 탈북청소년 수는 2,500~2,700여 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990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안학교·사설학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논다. 게다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중도 탈락률이 10%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인 못

지않게 탈북청소년들도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탈북청소년들이 동급생들보다는 몇 살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정규학교에 입학해서 함께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학습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고, 또 인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교에 편입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대안학교나 사설학원에서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밖에 없다.

필자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는 적지 않다. 올해 17세의 H양은 그동안 세 번 계절학교에서 공부한 다음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반장으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2008년 7월에 실시된 학기말고사에서 수석자리를 차지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활달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한다.

탈북청소년들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인이나, 남한인이나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말이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북한을 떠나왔기 때문에 북한이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한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한을 선뜻 '우리나라'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뷰티플 드림 콘서트는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탈북청소년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미는 행사이다.

이 탈북청소년들은 돈만을 벌고 떠날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뷰티플 드림콘서트에서의 기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이다.

2008. 8. 통권 125호 권두언

우리의 딸 난희의 결혼식

2008년 8월 23일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강남의 한 결혼식장에 모여들었다. 난희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축하해주기 위해서였다.

박범진 고문이 주례를 맡았고, 윤현 이사장과 김영자 사무국장이 신부 부모석에 앉았다. 또 이영환 팀장이 예식을 진행했고, 이영석 팀장과 양은주 전 간사가 접수를 맡았으며, 황선영 자원봉사자OB가 축가를 불렀다. 그리고 식장 좌석의 반 이상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인연이 있는 분들로 채워졌다.

이처럼 난희가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녀가 어린 나이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꾀꿉이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도 알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알며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난희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01년 12월의 일이다. 북한인권시민

연합 자문위원인 이원웅 관동대 교수가 탈북자 실태조사차 중국을 다녀오면서 우리 사무실에 들려 난회를 돕자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엔지의 어떤 조선족 집에 숨어 있는데 집주인의 거동으로 보아 어디론가 팔려갈 것 같다고 하면서 착하디 착한 난회를 도울 길이 없느냐고 하면서 몹시 안타까워했다.

즉석에서 모금이 시작됐다. 탈북자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이메일이 발송됐고 전화로 딱한 사정을 알렸다. 마침 월급날이어서 간사, 인턴들도 많지 않은 월급에서 얼마만큼씩 각출했는데, 김재욱 인턴 (현 재현고 교사)은 월급 전액을 내놓았다.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난회구출활동'이 시작됐는데, 국경을 넘다가 중국공안에게 붙잡혔지만 벌금을 물고 풀려나 무사히 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2002년 5월 한국에 들어왔고, 조사가 끝난 다음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우리와 상면했다. 이 때 난회는 태국에서 사왔다고 하면서 화장지로 여러 겹을 싼 벌꿀병을 우리 일행 앞에 내놓았다. 그동안 적잖은 탈북자를 중국, 러시아로부터 구출했지만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난 다음 계절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 2008년 2월에 졸업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인턴으로 일하던 복지시설에 졸업과 함께 정규직원으로 채용됐다.

2008년 4월 김순녀 씨 모자 구출을 위한 모금 때 난회는 3백만원을 각출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난회를 한국으로 데려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8. 9. 통권 126호 권두언

두 여고생의 탈북자 사랑 실천

2008년 10월 18일 강남의 한 빌딩 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후원을 위한 나무의 자리'라는 행사가 열렸다.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1~3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청소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그림을 전시·판매하는 행사였다. 성인·고등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조출한 자리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행사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두 여학생에 의해 마련됐다는 사실이다. 발표를 맡은 것은 김자원 양이었고, 그림은 김수민 양이 그렸다. 그림 판매대금과 찬조금 1백 15만원이 견혀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탈북청소년 지원기금 계좌에 입금했다.

발표에 앞서 김자원 양은 어째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양의 할아버지는 황해도 신천이 고향인데 해방 후 당신의 어머니·고모를 모시고 월남했는데 그때 아버지와 삼촌은 고향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 그러니까 김 양은 이른바 실향민 3세대인 것이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 관계로 김 양은 황해도 신천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할아버지가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2008년 4월 김수민 양은 친구들과 함께 개성 관광을 다녀왔는데, 먼 곳이라고 생각했던 개성이 버스로 한 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 이었고, 황해도 신천이 개성에서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있다는 사실에 몹시 놀랐다. 그리고 개성의 하늘·산·나무 등 주변의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은 데 또 한 번 놀랐다고 한다.

북한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두 여고생은 2008년 7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하는 '탈북동포돕기 자원봉사자 수련회'에 참가했다. 탈북청소년들과 2박 3일을 함께 보내면서 북한의 실상과 탈북동포의 어려운 사정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마침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으로 온 사람'에서 '내가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할 사람'으로 탈북동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됐다. 청소년 통일의식조사 중 탈북동포에 대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 떠난 사람' '한민족이므로' '통일을 빨리 이루기 위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자신들이 탈북동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탈북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탈북동포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2008. 11. 통권 128호 권두언

탈북대학생 오세혁 군의 경우

2009년 2월 9일 방일영문화재단은 대학원 방일영장학생 3명을 선발했는데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추천한 탈북대학생 오세혁 군이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 오군은 앞으로 2년간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학업에 전념 할 수 있게 됐다.

오군은 식량난이 극심하던 1999년 가을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2년 6개월 숨어 있다가 베이징의 독일대사관에 진입, 2002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하나원의 문을 나선 후로는 여러 직장을 전전했다. 도배공·목욕관리사(때밀이)·세븐일레븐 매장 관리인·실내골프장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문득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남북통일이 실현된 다음 북한으로 돌아가서 고향사람들을 도우려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26세 나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1학년에 입학, 지난 2월에 졸업했다. 북한의 사회구조 상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나아가서는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를 지망,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탈북대학생들이 한결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어 공부도 피나는 노력 끝에 TOEIC 795점을 획득하는 수준이 되었다.

2008년 6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탈북대학생 리더십캠프'의 모의입사시험 때 자기소개를 영어로 유창하게 해낸 청년은 바로 오세혁 군이었다. 이번에 오군이 방일영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게 된 데에는 박범진 고문님의 노고가 매우 컸다. 직접 오군을 만나본 다음 재단 사무실을 방문하고 탈북대학생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선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한 것이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박고문님의 관심은 남다른 바가 있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의 입학식·학예회·수료식에는 꼬박꼬박 참석할 뿐 아니라 '탈북청소년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뷰티플드림콘서트' 때에는 협찬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신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한 탈북여성이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당신이 일부를 각출할 뿐 아니라 이곳저곳의 장학회의 문을 두드리고 다니기도 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탈북대학생들이 있고, 그들을 자신의 아들딸처럼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남한의 어른들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2009. 3. 동권 131호 권두언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원봉사자들

얼마 전에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서울 교외로 MT를 다녀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실시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프로그램이 다르면 서로 만나는 기회도 없고, 또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간에 교류가 없다. 탈북청소년 돕기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정열과 시간을 바치고 있는 젊은이들이 애환을 나누고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우리가 10년 전, 1999년 최초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학습지도다. 자원봉사자가 탈북청소년가정을 방문해서 영어 또는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보수 과외지도다. 보통 왕복에 두 시간이 걸리고 두세 시간 가르친다. 혼자서 하는 일이어서 고민과 어려움이 많다.

두 번째로 역사가 긴 프로그램은 하나원에서의 청소년지도다. 1999년 하

나원이 문을 열었을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토요일마다 아침 여덟 시에 고속버스를 타고 안성까지 간 다음, 다시 하나원으로 가서 세 시간 정도 청소년들과 함께한다. 서울로 돌아오면 오후 서너 시가 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외로움은 덜하지만 토요일 하루를 거의 바친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한겨레계절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때 3주 간 탈북청소년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학습을 지도하거나 특별활동을 기획·운영한다. 방학 때가 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요즘의 풍조인데 이들은 국내에 남아서 탈북청소년들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1주일에 두 번씩 탈북대 학생들과 함께 TOEIC 준비를 하는 활동이다. 탈북대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졸업의 필수조건인 TOEIC 성적이다. 함께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우리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때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도 6개월을 채울 것을 요구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개중에는 수년째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젊은이도 있다.

사람들은 수령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그 수령에 한 가닥의 맑은 물이 흘러들어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이야말로 이 맑은 물이 아닐 수 없다.

2009. 6. 통권 134호 권두언

통일을 준비하는 음악회

2009년 8월 15일 오후 4시에 이화여자대학교 ECC 삼성아트홀에서 뷰티플 드림콘서트가 열린다. 탈북청소년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사)뷰티플마인드와 함께 세 번째로 여는 자선음악회다.

한국의 이름난 음악인과 함께 북한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또 활약한 탈북 음악인 여러 명이 출연한다. 북한음악에 접하고 또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음악회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머지않아 도래할 통일시대에 활약할 젊은 세대의 역량강화를 위해 쓰여질 기금마련이 이 음악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2009년 현재 한반도가 분단된 지도 64년이나 됐다. 이 말은 한국 인구의 태반이 분단이후세대라는 것을 뜻한다. 분단 이전에는 해마다 서울의 축

구팀과 평양의 축구팀이 서울과 평양을 오고가면서 친선시합을 했다든지, 문인 이효석의 경우처럼 강원도 평창의 총각이 함경북도 경성의 처녀와 혼인했다든지 하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허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식량난과 홍수사태로 북한주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등의 흉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북한과의 통일은 한국인에게는 재난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행스럽다고나 할까? 북녘 땅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속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올해 안으로 그 숫자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20퍼센트가 청소년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청소년이 2백 명인 것만 보더라도 그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들 북한이탈주민 이상으로 조국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 전문인으로 성장한다면 남북한 체제를 다같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회통합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탈북청소년들은 이미 한국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여름수련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통일의 당위성을 같은 또래의 한국 청소년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8·15 뷰티플드림콘서트를 놓고 ‘통일을 준비하는 음악회’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자화자찬이나 과장이 아니다.

2009. 8. 통권 136호 권두언

탈북대학생 김은주 양의 다짐

2009년 8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ECC 삼성아트 홀에서 개최된 제3회 뷰티플드림콘서트의 사실상 주인공은 김은주 양이었다. 피날레<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연주되기 직전 해맑은 웃음과 함께 자신의 마음속 희망을 밝히는 김은주 양의 영상이 스크린에 비쳐졌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눈물을 거두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7백 명이 넘는 청중은 우레 소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2008년 8월 15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 2회 뷰티플드림콘서트에서도 김은주 양의 메시지가 영상으로 전해진 바 있다. 그때의 메시지는 청중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저는 14세 때 엄마·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

다가 팔고 바닷가에서 미역을 따 말려서 팔았지만 죽밖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돌게 됐는데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다리 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국에 오게 됐는데 중국은 먹을 게 많아서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잡혀도 한사람만 잡히자. 누가 잡혀도 모른 척하고 도망치자 하고 서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일단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작년의 영상과 올해의 영상을 비교해 보니 김은주 양이 그 사이에 많이 성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그녀의 성숙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김은주 양을 처음 본 것은 2년 7개월 전인 2007년 2월이다. 2007년 1월의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 12회 한겨레계절학교에 입학한 김은주 양은 학습을 비롯한 매사에 적극적이어서 수료식에서 리더십 상을 받았다.

2007년 3월 세현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했고, 2009년 2월에 졸업했다. 졸업에 앞서 서강대학교에 합격했고 제16회 한겨레계절학교에서 이번에는 보조교사로서 나이가 어린 탈북청소년들의 누나·언니 노릇을 충실히 해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6월에는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에 참가했고, 7월에는 탈북동포돕기 자원봉사자수련회에 스태프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김은주 양이 올해의 영상에서 우리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재발견하면서 남을 도울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우리의 일에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009. 9. 동권 137호 머리말

탈북대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소액장학금

2009년 9월 9일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실에서 탈북대학생 3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다른 3명은 건강 또는 학업상 이유로 이날 참석하지 못했고 따로 장학증서를 받아갔다. 이들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4명은 앞으로 1년간, 곧 졸업하게 되는 2명은 3개월간 각각 장학금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장학금이라고 하면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자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뜻하는데, 탈북대학생의 경우 국가 또는 학교재단으로부터 등록금을 보조받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등록금이 해결됐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순탄해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교재·참고서를 사는데 목돈이 들어가고, 교통비·점심값·동아리회비도 만만치 않다. 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조비로 영구임대 아파트의 월세·관리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된다.

형편이 이러니 탈북대학생의 대부분은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에 나

설 수밖에 없다. 동급생에 비해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에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다 보니 학과성적이 좋을 수 없다. 그래서 적잖은 탈북대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10여 년에 걸친 탈북청소년지원사업을 통해 이런 딱한 사정을 파악한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년 전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독지가와 탈북대학생을 결연시켜 인생살이를 가르쳐줄 뿐 아니라 용돈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 새로이 탈북청소년지원사업단장을 맡게 된 임유철 이사는 멘토링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장학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의 노력이 최근 첫 성과를 거두어 이번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회장 이선규)가 기업이윤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장학금 9백 60만원을 북한인권시민연합에 기탁해 탈북대학생 4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1만7천 명에 달하는데 그중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탈북자는 6백여 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퍼센트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 비해 너무나 낮은 진학률이 아닐 수 없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탈북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미숙련 노동자로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장학증서를 받아든 탈북대학생들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은 것 같아서 앞날에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마음을 털어놓았다. 좀더 많은 기업이 탈북대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이 장학사업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2009. 10. 통권 138호 권두언

누가 “요즘 아이들은 철없다고” 하는가

2009년 12월 20일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경기여자고등학교 다문화동아리가 공동주최한 ‘주말프로그램 보고대회’가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남북한 출신 청소년들이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내용도 충실했고 발표하는 자세도 진지한 근래에 보기 드문 모임이었다.

이날 경기여고생들의 발표와 몸가짐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학입시준비에 여념이 없을 몸임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동안 한 달에 두 번 가량 북한과 탈북자에 대해 공부하고 또 탈북청소년들과 어울린 것도 놀랍거니와, 그 과정을 통해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깨닫게 됐으며 또 우리 사회가 탈북청소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밝힌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 학생의 발표는 모든 참석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

을 만큼 뛰어난 것이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더 북한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볼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는 게 더욱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면 좋겠다. (예컨대 자원봉사 경력 인정)

셋째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한 번 더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한 번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신다면 탈북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넷째 탈북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면 좋겠다.

다섯째 탈북청소년들을 하나원에서만 지내게 할 것이 아니라 개별지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탈북청소년문제에 정통한 전문인력을 빨리 양성해야 한다.

일곱째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 편견을 깨뜨려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북한의 호전성을 근거로 탈북자를 싫어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고 탈북자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여덟째 성공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깨뜨려야 한다.

과연 대학을 못가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영어 점수가 높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일까. 우리 사회는 너무나 성공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탈북청소년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처럼 생각이 깊은 청소년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0. 1. 통권 141호 권두언

문타폰 보고관과 탈북청소년과의 만남

2010년 1월 14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운영하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18회 계절학교’는 귀한 손님을 맞았다. 비티 문타폰 우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빠듯한 방한일정 가운데서 짬을 내어 계절학교를 찾아준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이 공부하는 모습만 구경하고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들과의 대화시간을 요청해 급히 그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단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과 둥글게 앉아서 친구처럼 묻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개중에는 똥판지같은 질문도 있었지만 문타폰 보고관은 성의껏 대답해주었다. 그 대화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문: “당신은 지금 하고 있을 일이 마음에 드는가? 다시 말해 행복한가?”

답: “행복하다. 유엔 특별보고관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세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북한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가?”

답: “후계자가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문: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답: “매우 느리지만 북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힘이 좀 더 모아져야 한다.”

문: “유엔 특별보고관은 높은 자리일 텐데 왜 보통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가?”

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필요한 일이지는 않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다. 나는 태국사람인데 태국에서는 더 편하게,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

문: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답: “나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화시간이 끝나고 청소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문타폰 보고관은 그를 위해 마련된 의자에 앉지 않고 청소년들과 함께 앞줄에 쭈그리고 앉았다.

문타폰 보고관은 태국왕실이 세운 출라롱콘대학 법학교수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유엔 특별보고관직을 여러 번 역임한 국제적 명사이다. 그런 사람이 이처럼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인권운동가는 저래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0. 2. 통권 142호 권두언

탈북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탈북청소년의 한국입국이 많아지면서 남북한 출신 청소년을 한데 아우르는 행사가 많아지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역사·통일·평화 토론대회(이하 토론대회)도 그런 행사 중의 하나다. 2010년 4월 10일의 예선에 이어 5월 8일의 16강전, 8강전을 거쳐 5월 15일 4강전과 결승전이 치러졌다.

탈북대학생 2명과 남한 출신 대학생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출전하는데 예선에는 20개 팀이 출전했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L4 축구팀·리더십캠프 수료자모임 소속 탈북대학생 8명(4개 팀)이 참가했다. 그중 2개 팀이 16강전에 진출했고, 1개 팀이 4강전에 진출했다.

예선은 자유주제였고, 16강전의 주제는 '전시작전권 환수 지금이 좋은가? 연기해야 하는가?'였으며, 8강전의 주제는 '북한인권법안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였다. 그리고 4강전의 주제는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

회담 필요한가?'와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는 붕괴할 것인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중 택일이었고, 결승전의 주제는 '일본의 독도침탈행위, 조용한 외교를 지속해야 하는가? 공세적 외교로 전환해야 하는가?'였다.

작년에 열린 제1회 토론대회에 김혁 군(당시 가톨릭대 4학년)과 김은주 양(당시 서강대 1학년)이 출전했는데, 그들이 속한 팀이 예선에서 탈락했다. 1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리더십캠프에서 견문을 넓혔다. 그 결과로 김혁 군(서강대 대학원 1학년)과 정광성 군(서강대 1학년)이 속한 팀이 이번 제2회 토론대회에서 3등상을, 그리고 김은주 양과 오세혁 군(고려대 대학원 1학년)이 속한 팀이 16강 진출 및 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 실시돼 있고, 또 창의적인 의견의 발표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학과 내용이 전혀 다르고, 수개월 또는 수년의 학습 공백기를 거친 상황에서 동급생 따라가기도 버거울 터인데, 1년간의 노력 끝에 이런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여간 대견스러운 게 아니다.

필자가 더욱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재외탈북자구호기금으로 선뜻 내놓은 사실이다. 오세혁·김은주·정해건(자원봉사자)·조미혜(자원봉사자) 팀이 팀상으로 받은 30만원(세금공제 후 286,800원)을, 김혁·정광성 팀은 상금 50만원 중 15만원을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희망프로젝트에 기부한 것이다. 김혁 군과 오세혁 군은 혼자 넘어왔고, 김은주 양과 정광성 군은 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살고 있다.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탈북청소년들은 씩씩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0. 6. 통권 145호 권두언

세 탈북소녀의 밝은 웃음소리

필자가 함경북도 회령에서 온 세 탈북소녀를 처음 만난 것은 2006년 3월 18일이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이영석 교육훈련팀장의 손을 잡고 다가온 세 소녀(20세 둘, 18세 하나)가 수줍게 필자의 품에 안기면서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금주와 금희는 자매이고 금화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떠돌이생활을 함께 한 사이이다. 이들의 고난은 1994년경부터 시작됐다. 그때 금주와 금화는 인민학교 3학년(8세)이고 금희는 1학년(6세)이었다. 집에 먹을 게 없어서 1주일을 굶어야 했고 결국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세 소녀는 친구들과 함께 나진선봉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장에서 팔고 밤에는 산속에 지은 비닐집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4, 5년을 지내다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서 조선족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던 중 우리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필자는 이들을 두 번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들이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관계로 자주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서울 변두리의 공영아파트를 배정받고 살림을 차렸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다.

금주와 금희는 한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깔끔하고 아담하게 꾸며 놓고 있었다. 그리고 필자를 놀라게 한 것은 이들이 북한에서 초등교육조차 변변하게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과정(12년)을 불과 4년 사이에 다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금주는 요즘 미장원에 취직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2년 안에 2천만 원을 저축해, 현재 예치하고 있는 1천만 원에 보태면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밝게 웃었다.

금희의 사정은 약간 달랐다. 같은 또래의 탈북청년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한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 밝게 웃으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60년대에 소문이 자자했던 영화 <또순이>의 주인공을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배우 도금봉 씨가 분장했던 또순이는 함경도 출신으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사업을 일으키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지 않았는가. 이 영화가 1·4후퇴 때 월남한 분들의 삶을 그린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또 하나의 영화 <또순이>가 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2010. 7. 통권 146호 권두언

우리의 희망: 통일세대의 자각

일반인과 대학생이 참가하는 수련회는 2010년 6월 30일 ~ 7월 2일에, 고등학생이 참가하는 수련회는 7월 19일 ~ 21일에 각각 진행됐다.

필자는 제1회 이래 2박3일 동안 참가자들과 숙식을 함께하면서 진행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수련회의 진화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참가자들의 국적이 다양해진 것이다. 초기에는 국내 거주 한국인만이 참가했는데, 요즘에는 해외거주자와 한인2세 그리고 외국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주재 외교관 2명이 합류했는데,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분들이어서 의사소통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은 참가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는 대학생 이외에 일반인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고등학생 지망자가 많아져서 올해는 아예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를 따로 개최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강의내용을 쉽게 풀이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세 번째로 달라진 것은 프로그램 종료 후의 반응이다. 초기에는 탈북동포들의 사회정착에 도움을 주는 일에 주로 관심이 쏠렸는데, 최근에는 통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통일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참가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모든 수련회에서 개회사 이외에 제1강을 담당해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목적과 의의라는 제목의 강의인데, 주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시대상과 함께 설명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역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세종16년(576년 전)에 함경북도에 6진(요새)을 개척해 삼남(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농가 2만2천 호를 이주시킨 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고향이 황해도 평산이라는 사실, 해방 직후부터 휴전 때까지 5백만 이상의 이북도민이 월남한 사실 등을 언급한다. 북한주민이 우리의 동족이며 형제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이번 수련회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바로 자신들이 통일을 이룩해야 할 세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술회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010. 8. 통권 147호 권두언

탈북청소년을 위한 계절학교를 마치고

2011년 1월 3일에 시작된 '제20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가 1월 18일에 무사히 끝났다. 학과수업과 특별활동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됐고, 재현고생, 경기여고생과 함께하는 역사탐방은 강원도 양양에서, 그리고 수학여행은 경기도 남이섬에서 각각 실시됐다.

제20회 계절학교에서 공부한 탈북청소년은 29명이고, 현직교사 8명과 보조교사 11명이 그들을 지도했는데, 보조교사는 숙식을 함께하면서 1대1로 가르쳤다. 그리고 남한에서 태어난 청소년 40명(재현고생 20명, 경기여고생 20명)이 1박2일간 여행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탈북청소년들과 나누었다.

통일교육원에서 보낸 13일간은 매우 쾌적했다고 한다. 교육원 직원들은 물론 식당 영양사·미화원 아주머니들도 탈북청소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 아마도 홍재형 원장께서 탈북청소년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

일 것이다.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알찬 것이었다. 수학·역사·영어 학습이외에 발표력 향상 프로그램과 연극을 통한 심리치료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등이 포함됐다. 역사탐방여행과 수학여행까지 실시됐으니 앞으로 검정시험을 거쳐 대학에 들어갈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축소판 중고교생활의 추억을 만들어 준 셈이다.

진행을 맡은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계절학교 참가자들의 학습의욕은 여느 해보다도 높았다고 한다. 밤늦게까지 자습하는가 하면 틈날 때마다 영어단어 외우기에 힘썼다는 것이다. 1대1로 가르쳐주는 보조교사에게 귀찮을 정도로 묻고 또 묻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배우는 사람들의 열의가 이처럼 높으니 가르치는 사람들도 신날 수밖에 없다. 교사 학생 모두가 만족스럽게 끝난 계절학교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덕성이 좋은 탈북청소년과 보조교사로 수고하는 대학생에게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간식을 제공해 주신 다음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형님(통일교육원장), 성낙양님(두산동아 대표이사), 이정혜님(IOM 서울대표), 이미숙님(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요안나 호사낙·박수진·김은영·하경은·이영환(북한인권시민연합 스태프).

끝으로 유효성이 입증된 이 프로그램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장소의 확보가 절실함을 강조해야 하겠다. 지난 10년동안 프란치스코회관, 성수중학교, 통일교육원, 그리스도대학교 등을 전전했는데, 더 이상 장소 걱정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해본다.

2011. 1~2. 통권 151호 권두언

SFS에서 열린 ‘북한인권의 밤’

SFS란 Seoul Foreign School(서울외국인학교)의 약자이다. 2012년이면 설립 100년을 맞게 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학교 중의 하나이다. 서울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52개국에서 온 약 1천 5백 명의 아동·청소년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2011년 2월 24일 ‘낙원으로부터의 탈출 : 북한을 떠난 다음의 삶’이란 제목의 행사가 SFS 사친회의 주관으로 열렸는데 학부모·외교관·기자·NGO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연사는 아드리안 존스(주한영국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 윤현(북한인권 시민연합이사장), 요안나 호사냐(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협력·캠페인팀장), 박요셉(탈북자·건국대 수의학과 재학생) 등 4명이었다.

존스 참사관은 북한의 인권상황 전반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발언했고, 윤현 이사장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설립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 벌여 온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호사냐 팀장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영상물 상영에 이어 탈북의 원인과 경로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다음의 삶에 대해 해설했고, 박요셉 씨는 북한에서의 삶과 중국에서 겪은 일 그리고 한국생활에 대해 증언했다. 연사들의 발언이 끝난 다음 참석자들은 다과를 나누면서 밤늦게까지 북한의 인권상황과 탈북자들이 중국 등지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필자는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첫째로 영국은 여전히 큰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영국인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재해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엠네스티인터내셔널이 영국에서 시작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날의 분위기도 역시 그러했다. 오래지 않아 함께 살아야 할 북한동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웠다.

둘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다가 보니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믿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적 중립, 자원봉사 위주, 젊은이와 함께, 활발한 국제활동, 실질적 지원이라는 우리의 원칙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 국제활동을 벌일 수 있는 탈북자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박요셉 씨는 2004년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비교적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가정환경과 탈북과정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얘기해 청중에게 감동을 주었다.

여러 모로 의미 있는 모임이 신년 초에 열렸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011. 3. 통권 152호 권두언

탈북대학생을 위한 판교 만찬회

2011년 6월 17일 판교 소재 세종연구소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이 탈북대학생들을 불러 그들의 동아리활동 이야기를 듣고 또 만찬을 베푸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탈북대학생 25명과 한국 출신 대학생 30명, 김용구 외교협회 회장을 비롯한 전직 대사 6명, 송대성 소장을 비롯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5명이 참석했는데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는 필자와 김영자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공로명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세종재단의 연혁을 소개하면서 1983년 10월에 일어난 아웅산묘소폭파암살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남아·대양주 순망에 나선 전두환 당시 대통령 일행을 암살하고자 북한 공작원이 미안마(버마)의 국립묘지인 아웅산묘소에 폭탄을 설치, 폭발시켜서 30명의 사상자가 생긴 사건을 말한다. 순국 외교사절의 유가족을 돕기 위한 거국적 모금운동과정에서 재계 지도급 인사들이 각출한 출연금으로 재단이 설립됐

고, 부설기관으로 세종연구소가 발족한 것이다. 탈북대학생들은 난생 후 처음 들어보는 끔찍한 이야기에 할말을 잃은 듯했다.

필자는 축사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는 현재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인권개선운동이 1995년 9월 공로명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5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적한 북한인권비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북한인권시민연합 결성을 준비하고 있던 필자는 공 장관의 연설에 고무돼 결성작업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둘째는 전직 외교관과 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참여가 북한인권개선운동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작년 12월의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92개국 중 106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아직도 57개국이 유보적인 자세(기권)를 취하고 있다. 3분의 2(128개국)가 되려면 22개국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직 외교관·연구위원들이 연고를 찾아서 이 나라들에 북한인권개선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셋째는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이 사회통합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고충 중 하나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발전도상국에서 온 사람 대하듯이 무시한다는 것이다. 세종 16년에 시작된 육진개혁 때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농민 2만 2천호(戶)가 함경북도로 이주했음이 역사에 기록돼 있다. 그 후손이 탈북자인 것을 안다면 그들을 이방인으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날 전직 대사 두 분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고, 탈북대학생들의 표정이 무척 밝았던 게 인상에 남는다.

2011. 7. 통권 156호 권두언

격오지 공군부대 순회 집중정신교육

2012년 4월 이래 필자는 사무국장·정치학자·탈북동포와 팀을 짜서 매주 3회 이상 전국 각지에 산재한 방공관제대대 및 방공포대를 방문, 북한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 진행된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공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1년 10월 4일 공군 작전사령부 소속 장병에 대한 인식교육이 계기가 되었다. 장병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올해 초까지 여러 번 실시되다가 4월부터는 아예 전국규모로 확대된 것이다.

이 집중교육은 4시간 내지 5시간에 걸쳐서 실시된다. 필자가 첫머리에서 '왜 북한인권인가'라는 기초연설을 행하고, 이어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작년에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북한인권 관련 영상물을 상영한 다음, 탈북동포가 북한생활을 증언한다. 그리고 2008년에 제작된 영화 <크로싱>을 시청하고, 그런 다음 정치학자가 북한인권개선 운동을 반대

하는 세력의 실체를 냉철하게 분석한다. 그 사이사이에 사무국장이 탈북동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이해를 돕는다.

그동안의 순회교육을 통해 필자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첫째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수행에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한 것이다.

2012년 4월에 방문한 1천5백미터 고지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한겨울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상상할 수도 없는 추위가 아닐 수 없다. 겨울에 얼었던 시멘트가 날씨가 풀리면서 금이 가고 바스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교육에 참가한 장병들의 자세가 매우 진지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북한인권개선운동의 전망이 매우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사병들은 1년 또는 2년 후에는 제대하고 사회생활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북한의 인권상황과 탈북동포들의 어려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교육이 끝난 다음 적잖은 장병들이 사무국장에게 자원봉사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셋째는 교육수준이 높아진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설득하려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회교육 전반을 통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강조되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북한추종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논지가 받아들여진 사실에서 이 점을 알 수 있다.

공군부대 순회교육을 계기로 우리의 대(對) 국민 인식교육에 새 지평이 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2012. 6. 통권 165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제8회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

2012년 6월 하순 서울 남산 소재 서울유스호스텔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하고 산은사랑나눔재단이 후원하는 제8회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가 개최되었다. 개최식 환영사에서 필자는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는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 15년에 시작되어 30년에 끝난 육진개혁 때 삼남 지방(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주민 2천 2백호가 함경도로 이주해 정착한 사실이라든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황해도 평산 태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극복되리라는 말이다.

둘째는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이란 공화국의 주권자를 뜻하므로 국가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는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든지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래야만 통일 후 고향에 돌아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리더십 캠프는 올해로 8년째를 맞게 되는데 필자는 제1회 이래 줄곧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진화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우리의 프로그램이 그들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계절학교, 리더십 캠프, 리더모임 등에 열심히 참가한 탈북청소년 중에서 장학금을 받고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오세혁 군과 역시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1년간 공부하게 될 김은주 양이 배출된 게 그 좋은 사례다. 말하자면 이들은 우리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의 효용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깨달았다. 여러 해 전에 열린 계절학교에서 특하면 폭력을 휘둘러 지도교사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김모 군이 의젓한 대학생이 되어 캠프에 참가했는데, 자기소개 시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북한인권시민연합 여러 선생님들의 지도와 관심 덕택에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고 토로하는 것이었다.

또다른 참가자는 말을 앞세우는 한국의 이른바 유지에 대해 불신감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이 사라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캠프에서 탈북대학생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김석우님, 윤우님, 임유철님, 엄영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2. 7. 통권 166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하늘을 나는 ‘미운오리새끼들’

2012년 7월 5일 탈북대학생 김은주 양이 미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1년간 어학 연수차 미국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의 머릿속에 ‘하늘을 나는 미운오리새끼’라는 말이 떠올랐다.

‘미운오리새끼’란 한스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의 제목이다. 그 줄거리는 이렇다. 어느 연못가 풀숲에서 어미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는데, 그중에 다른 것보다 큰 알이 있었다. 그 알에서 늦게 태어난 오리는 어미오리가 보기에 못생겨서 다른 오리들의 구박을 받았고, 마침내 그 곳을 떠났지만 그를 환영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외롭게 겨울을 보낸 미운오리새끼는 어느 봄 날 날갯짓을 하자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자 오리가 아닌 백조였다.

필자가 김은주 양을 보면서 미운오리새끼를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그녀가 청소년 시절을 보낸 북한과 중국에서의 삶 때문이다. 4년 전에 열린 뷰티

폴드럼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14세 때 엄마·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 유랑 길에 올랐습니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기도 하고 비오는 날에는 다리 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국에 오게 됐는데, 중국은 먹을 게 많기는 했지만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됐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내가 태어났고 그렇게 그리워한 북한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곤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으로 잡혀 갔을 때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김은주 양과 어머니·언니는 또 다시 탈북해 한국으로 온 다음에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김은주 양은 5년 전인 2007년,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운영하는 계절학교에서 편입학을 준비한 다음 정규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됐고 졸업과 함께 서강대학교에 입학, 2012년 봄에는 4학년으로 진급했다.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는 보조교사로서 계절학교에서 봉사하면서 나이 어린 탈북청소년들의 누나·언니 노릇을 충실히 하기도 했다.

2012년 8월 25일에는 또 한 명의 탈북대학생 박혜진(가명) 양이 미국유학길에 오른다. 아홉 살 때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나와서 살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당하기를 세 번이나 겪은 다음 마침내 한국으로 오게 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하는 리더십캠프에 참가한 게 인연이 되어 우리의 추천으로 NGO 물망초(대표 박선영)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게 된 것이다.

좀더 많은 ‘미운오리새끼들’이 하늘을 날게 되기를 기원한다.

2012. 8. 통권 167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한 교포가정의 자녀교육

2012년 가을 필자는 <Tears of blood>라는 제목의 영문 책을 읽었다. 이 책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힌 다음 47년간 북한에서 억류생활을 보낸 유영복 씨의 수기 <운명의 두날>의 영문판이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포로교환이 있었지만 그때 북한측은 약 6만 명의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계속 억류하고 탄광 등지에서 노동자로 혹사했다.

1994년 10월 조창호 씨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도움으로 탈북, 귀환하면서 미송환국군포로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현재 약 80명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그중 2명의 귀환에 관여한 바 있다.

이 글에서 필자가 <Tears of Blood>에 언급하는 것은 역자가 17세인 재미교포 2세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자란 청소년이 한국전쟁

과 관련된 한국 책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은 이만저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포 2세가 한국어를 해독한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원본에 없는 해설(Introduction)에서 한국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휴전협정 체결 후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와 그 자녀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학대와 차별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지리 등에 익숙하지 않는 외국인 독자를 위해 80개가 넘는 주석을 일일이 달아 한 번 읽으면 한국전쟁과 한국역사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놓았다.

근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 무지하고, 심지어 한국전쟁을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라느니, 현충일을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날이라느니 하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국토가 얼마나 황폐해졌으며,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턱이 없다.

역자는 책머리에서 자기는 매우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서 한국말을 배워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었고, 이 책을 번역하는 데 18개월이 걸렸는데 번역한 글을 놓고 어머니·아버지와 함께 퇴고하기를 수없이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번역에 매달린 것이다.

역자의 미국 이름은 Paul Kim이고 한국 이름은 김태완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순자 숙명여대 명예교수이신데, 1983년 아웅산묘소폭파암살 사건 때 순국한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당시)의 미망인이시다.

2012. 10. 통권 169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프린스턴NKHR

최근 10년 전(2002년)부터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젊은이와 재 미교포 2세들이 방학기간 중에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짧게는 20일 정도 일하고, 풀브라이트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1년간 일한다. 인턴의 대부분은 하버드·예일·프린스턴·코넬·스미스·웨슬리 등 이른바 명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우수한 인재들이다.

개중에는 졸업 후 미국 국무부나 인권 NGO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주최하는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남편·아내와 함께 참석하는 사람도 있다. 첫 사회경험을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한 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2011년 여름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는 남학생 정윤석 군이 3개월간, 여학생 Kristen Kim(한국명 김희래)와 Anji Shin(한국명 신소림)이 2개월간 인턴으로 일했다. 정윤석 군은 유학생으로 올해 군복무차 귀국했고, Kristen

Kim과 Anji Shin은 시민권 소유자로 미국에서 살고 있다.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 두 여학생은 북한인권동아리를 교내에서 만들었는데 단시일내에 회원 70명을 확보하고 세미나·전시회·영화감상 등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동아리 이름은 프린스턴NKHR이다. (NKHR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영문 약자다.)

2012년 4월에는 프린스턴NKHR 회원과 하버드대·시카고대 학생들이 동참한 31시간 단식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중국에 숨어 있다가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 당한 탈북자 31명의 강제송환에 항의하는 단식이었다. 이때 2,545달러를 모금했고, 그중 2,000달러(2,114,541원)를 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 송금했고, 탈북자 1명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비용으로 충당했다.

프린스턴NKHR은 2012년 11월 26-27일 미국 동부지역 대학의 북한인권동아리 대표들을 모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놓고 함께 토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회의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탈북자 2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그중 한 명은 지난 7월 도미한 김은주 양(서강대 4학년)이고, 또 한 명은 한복금 양(공주교대 3학년)인데, 두 명이 모두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운영하는 한겨레계절학교·리더십캠프 수료생이다.

지난 10수년에 걸친 탈북청소년교육과 국내외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교육이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는 듯하여 무척이나 마음이 뿌듯하다.

2012. 11. 통권 170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노(老) 탈북학자가 더 살고 싶은 이유

미국 버지니아 주에는 21년 전인 1992년에 탈북한 김현식 전 평양사범대학(현 김형직 사범대학) 교수가 살고 있다. 그는 평양에 있을 때 고등중학생이던 김정일의 개인교사로서 러시아어를 가르쳤다. 1960년 2월 김일성이 참석한 러시아어 경연대회에서 김정일이 푸시킨의 ‘겨울 길’을 러시아어로 막힘 없이 암송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김현식 교수에게 달려와서 그의 품에 머리를 박고 영영 울었다고 한다.

그는 2013년 7월 19일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미국의 ‘한국계 미국인 나눔운동(KASM)’이 공동으로 주최한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의 워싱턴 프로그램 수료식에 참석해 소감을 발표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가지 않고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크게 실망했고, 또 탈북자들이 한국·미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했다. 그러다가 오늘 한국

에서 착실하게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 너무나 감격스럽다. 현재 내 나이가 여든이지만 좀 더 살아서 밝은 날을 보아야 하겠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탈북대학생은 모두 6명(남 4명, 여 2명)인데 지원자 40명 가운데서 엄선된 사람들이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열심히 참가하며 인생 목표가 뚜렷한 젊은이들이다. 워싱턴 프로그램이 끝나고 무엇을 배웠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귀국한 다음에도 하룻밤을 함께 자면서 미국방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식 교수를 것처럼 감동시킨 것은 탈북대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는 게 자신들의 역할임을 깨닫고 앞으로 그 일에 헌신할 것을 결심한 일이라고 하겠다. 한 참가자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로그램이 심화될수록 내 머릿속에는 USA라는 키워드보다는 KOREA라는 화두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되었다. 그동안 내 스스로가 제일 잘 안다고 자만했고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바쁜 일상에 살면서 관심에서 멀어졌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것이 통일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프로그램을 지속·발전시켜야 하겠다.

2013. 9. 통권 179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탈북청소년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탈북청소년교육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교육프로그램은 2001년 8월의 제1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이다. 중학교 교사·대학생들이 탈북청소년들과 3주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학습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때 참가한 청소년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소년이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법률전문대학원 입학 준비중이다. 당시만 해도 대학에 입학한 탈북자가 꽤 많았는데 제대로 졸업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워낙 학습공백기가 많았고, 또 학습내용이 북한과 크게 다른 관계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예전에 비해 대학졸업자가 많아지고 있다. 부모의 손을 잡고 한국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이 정규학교·대안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한 관계로 대학생활을 무난히 마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탈북청소년들이 정규학교·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습이 아니라 동급생

들과의 인간관계라고 한다. 말씨가 다르고 또 동급생에 비해 나이가 많은 관계로 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가정 사정까지 복잡한 경우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방황하게 된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여러 프로그램이다. 2013년 8월에 대학입학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박윤희 양의 경우가 그 좋은 본보기다.

박윤희 양은 함경북도 무산에서 성장했다. 12세 때 아버지가 식량을 구하러 중국에 갔다가 그 길로 한국에 오게 됐고, 얼마 후 어머니와 두 남매를 사람을 시켜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박윤희 양의 한국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열다섯 살에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했는데 북한에서 생활고로 거의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학습에서 뒤떨어졌고 동급생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다음에도 사정은 똑같았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옮겨갔으나 거기에서도 잘 적응되지 않았다. 컴퓨터에서 독학으로 검정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그동안 박윤희 양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운영하는 계절학교에 네 번, 역사탐방에 세 번, 남북한출신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에 네 번 참가해 학습요령을 배우고 친구와 사귀었다. 지난 4월에는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시험에, 8월에는 대학입학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했고, 내년에 대학 아동교육학과에 진학할 예정이다. 탈북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2013. 10. 통권 180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북한인권 청소년워크숍의 진화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011년 이래 국내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인권 청소년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인권 일반·북한의 인권상황·재중탈북자의 삶·탈북자의 한국생활 등을 전문가와 탈북자의 강의·영상을 통해 배운 다음, 역할극 또는 UCC제작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이 써내는 감상문을 보면 북한주민이 남한주민과 똑같은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 매우 마음이 아프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재미교포 자녀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돌아간 다음 북한인권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서 탈북난민돕기 성금을 모아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

2013년 7월 하순에 열린 제3회 북한인권 청소년워크숍은 예년과는 달리 에세이콘테스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북한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자료를 모은 다음 에세이를 써 보라는 것이다. 올해의 에세이 주제는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였다. 마감날인 10월 4일까지 14편의 에세이가 접수되었는데 모두 알찬 글이었다. 그중 이한나(지구촌국제학교생)·최준용(용인외고생)·김자이온(탈북자 고려대생)의 에세이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세 학생은 내년 1월 21~28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인권활동가들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유엔(UN)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견학하는 것 이외에 여러 국제기구를 방문해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옛말이 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경험해야 확실히 안다는 말이다. 북한인권 청소년워크숍에서 강의를 통해 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게 하자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총소득(GNI)의 0.7%를 ODA(정부개발원조)로 사용할 것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1974년에 이미 실천한 국가이다. 현재는 연간 70억 달러 이상을 발전도상국의 개발·복지·교육 등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2010년 이래 주한대사관을 통해 이 지원을 매년 받고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3. 11. 통권 181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꿈을 이루어가는 탈북민 1.5세대

나이 들어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을 이민 1세대라고 하고, 부모에게 이끌려 간 청소년을 이민 1.5세대라고 하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민 2세대라고 한다.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동포 2만 6천 명 중 20퍼센트 정도가 1.5세대이다.

그동안 우리가 만난 탈북동포의 상당수가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를 탈북의 동기로 꼽았다. 이른바 출신성분 때문에, 또는 생활고로 인해 북한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왔다는 말이다. 개중에는 가정 해체로 인해 ‘꽃제비’로 떠돌다가 운이 좋아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탈북청소년도 적지 않다.

이들 탈북청소년(탈북민 1.5세대)의 사회정착을 위해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지난 12년간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운영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이다. 여름방학과 겨

울방학 때 탈북청소년과 한국 중학교 교사·대학생이 3주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2001년 8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첫 계절학교는 서울 중국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실시됐는데, 참가학생 중 유난히 눈에 띄는 학생 하나가 있었다. 그해 1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원교육을 마친 지 얼마 안 되는 13세의 소년(임철 군)이었다.

나이에 비해 몸이 작았지만 눈망울이 초롱초롱해 매우 영특해 보였다. 공부도 잘하고 온순해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데, 휴식시간에도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 건물 입구에 그녀가 있는데 그 소년이 그녀에 걸터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필자의 눈에 선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회안전부(경찰)의 고급간부였던 할아버지가 김일성독재에 반대해서 숙청당해 온 가족이 아오지 탄광으로 추방돼 모진 고통을 겪어야 했고, 9세 때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어머니가 과로로 사망, 여동생과 함께 할아버지·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그분들도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중국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난 다음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한다. 새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나는 왜 어머니 복이 없을까?”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계절학교를 마친 다음 초등학교 6학년에 편입했고, 고등학교입학시험 합격으로 중학교과정을 건너 뛴 다음,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마친 다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합격,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북녘에서 버린 인재가 남녘에서 대들보 감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2013. 12. 통권 182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탈북청소년들의 눈물

2014년 1월 22일 17일간에 걸친 '제25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가 무사히 끝났다. 청량고등학교의 임병우 선생, 재현고등학교의 김재욱 선생, 아나운서 김희영 홍보대사와 대학생 12명이 탈북청소년 27명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학습을 지도하고 진로상담 등에 종사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약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수료식이 진행됐는데 학생대표의 소감문 발표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학생대표 김혁균(20세)이 얘기를 하다가 말고 자원봉사자 형님과 누님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식당 여기저기에서 탈북청소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춘기의 청소년들이라 그럴 수 있다고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탈북청소년들이 살아온 과정을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

이 태어나고 자란 북한에서 또 몰래 숨어들어간 중국에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정에 굶주렸었는데 계절학교에서 형님·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 어찌 이별이 아쉽지 않겠는가.

필자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계절학교 수료식 때의 일을 회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여학생의 감상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도 세상에는 나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절학교에 와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필자는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에게 속고 또 학대를 받았으면 세상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볼까 하고 마음이 몹시 아팠다. 그 후 이 여학생은 연세대학교에 진학했고 현재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계절학교에서도 선배와의 대화시간에 오래 전에 계절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탈북청년들이 참가해주었다. 2014년 3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는 임철균이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장시간 얘기 해주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광성군은 계절학교 영어단어 외우기에서 만점을 받은 2명에게 아르바이트로 번 돈(3만원 씩)을 상금으로 수여했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교육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벌인 남한출신 대학생은 줄잡아 1천 명이 넘는데 이들이야말로 통일 후 북한주민을 사랑으로 품어줄 소중한 인재라고 할 것이다.

2014. 2. 통권 184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한 탈북동포의 선물

2014년 6월 필자는 한 탈북동포에게서 정성이 담뿍 담긴 선물을 받았다. 그 탈북동포는 선무(線無) 화백이고 선물은 봉선화를 배경으로 한 필자의 초상화다. 그림 뒷면에는 자작시(自作詩)가 쓰여 있었다.

“불편한 몸/ 지팡이 잡고/ 약 드시며/ 다니시는 것은/ 북한사람들의/ 인권 때문이여라/ 이 세상 사람들의/ 인권 때문이여라”

봉선화를 배경으로 삼은 데에는 사연이 있다. 독립문 네거리에는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이 1997년부터 14년간 세 들어 있던 4층 건물이 있었다. 어느 해 초여름에 지저분한 비상계단을 치우고 자그마한 화단을 만들어 봉선화 씨를 심었다. 정성스레 물을 주었더니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다.

어느 날 아침 물을 주려고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열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나의 봉선화들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밤새 내린 비로 줄기가 꺾인 것이다.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서 버팀목을 대주었다.

날이 가면서 줄기는 굵어졌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름 내내 꽃을 피웠다. 꿀벌이 날아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봉선화 꽃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재미교포 2세 또는 유학생들이 인턴으로 수개월씩 봉사하고 간다. 나는 그들 하나하나를 불러내어 봉선화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마철에도 꺾이지 않고 여름 내내 꽃을 피우는 봉선화야말로 슬한 외침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지켜낸 것은 오직 우리 겨레 여인들의 강인한 생명력 때문이었다는 것, 일제치하에서 조선 사람들이 흉난과 작곡의 <봉선화>를 부르면서 '환생(광복)'의 날을 기다린 것, 세속을 떠난 범정 스님이 인도여행 중에 봉선화가 눈에 띄어 <봉선화>를 마지막 노래 부르다가 마음속에 슬픔이 고이려 했다는 것 등이다.

이때 나는 장마 때 겪은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동포 2만 7천 명 중 70퍼센트가 여성인데 그들이 중국에서 떠돌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우리가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봉선화가 다시 꽃꽂이 일어서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봉선화 꽃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이 젊은이들에게는 신선한 감동을 준 모양이다. 얼마 전에 필자를 방문한 미국 인턴 출신의 한 젊은이가 지금도 봉선화를 키우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지금 세 들어 있는 건물에는 비상계단이 없어서 키우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해주었다.

선무 화백은 아마 수년 전의 봉선화 꽃밭이 생각나서 이런 그림을 그린 모양이다.

2014. 7. 통권 189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탈북청소년의 도전과 우리의 응원

2014년 8월 26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제8회 뷰티풀드림콘서트가 열린다. 그런데 콘서트를 알리는 포스터의 글귀가 약간 바뀌었다. ‘탈북청소년을 돕는 자선음악회’가 ‘탈북청소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자선음악회’로 바뀐 것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자선음악회로 모아진 성금으로 뒤떨어진 수학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는데, 앞으로는 탈북청소년들의 능력개발 또는 ‘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쓰겠다는 말이다.

수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동포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부모에게 이끌려서 입국, 초·중·고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학과성적이 평균이상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세워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인재가 많아지고 있다.

2014년 7월 초순 캐나다로 떠난 이성주군이 그 좋은 본보기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아들 김정일이 권력을 잡으면서 구세대 간부를 지방으로 축출했는데 이 때 고급장교였던 그의 아버지도 가족을 데리고 평양에서 쫓겨났다.

2년 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곧 돌아올 생각으로 아들을 북한에 남겨놓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다. 혼자 남겨진 이 군은 그 후 4년간 북한 각지를 떠돌면서 구걸과 도둑질로 목숨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참으로 우연하게 친할아버지를 만나게 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할아버지를 통해 한국에 정착한 아버지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20002년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때 이후로 이 군은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여러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가해 도약을 준비했다. 방학 때 열리는 계절학교·대학생을 위한 리더십캠프·남북한 출신 청소년축구팀 등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성실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리고 외교학을 더 공부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하고자 영어공부를 충실하게 했다.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왔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캐나다의 NGO 한보이스가 탈북청소년을 캐나다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적임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온 것이다.

우리는 서슴없이 이 군을 추천했고, 한보이스측이 우리의 추천을 받아들였다. 이군은 드블린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본인이 잘하면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가 떠나기 전 우리는 특별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그의 장도를 축하해주었다.

2014. 8. 통권 190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자라나는 우리의 차세대 활동가

2014년 8월 10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하는 전시회 '꽃제비 날다'의 전시장 갤러리 이즈 앞에 내외국인 수십 명이 모여들었다. 탈북청년 강춘혁 군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 강군이 밑그림도 없이 능숙한 솜씨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완성된 그림은 누더기를 걸친 소년(꽃제비)이었는데 애처롭게도 손이 묶여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강군은 그림 여백에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라고 큼직하게 써 넣었다.

이 아이는 2013년 5월 말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갔지만 라오스 관헌에 의해 다시 중국으로 넘겨져 끝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고아 9명을 가리킨다.

그때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가두캠페인을 벌여 1만5천명의 서명을 모아 청와대로 보내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탄원했다. 하지만, 탈북고아 9명의 모습은 다시는 보이

지 않았다. 그때만큼 무력감을 절실히 느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는 모든 북한인권 활동가가 그때 느낀 무력감과 허탈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함경북도 온성에서 태어난 강군은 한국에 온지 1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운영하는 계절학교와 대안학교에서 공부한 다음 대학입학자격 검정시험에 합격, 홍익대학교 회화학과에 재학 중이다. 그림도 잘 그리지만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서 최근 <쇼미더머니>라는 힙합 오디션에 출전,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전문가들이 그를 주목한 것은 탈북자라는 점도 있지만, 가사 내용이 한국에서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북한인권 관련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한 소절은 다음과 같다. '총살이 두려워 숨죽인 채/탈북한 곳이 중국인데/시체들 속 굶주린 배를 채워준 건 들판의 풀뿌리'

그런데 이 전시회의 특별이벤트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끈 것은 강춘혁 군의 그림 이외에도 김혁 군과 김은주 양의 증언이었다. 김 군은 수년에 걸친 자신의 꽃제비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게 했다. 또 김은주 양은 중국 벽지에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중노동에 대해 상세히 말해 주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외국미디어가 이들의 증언을 크게 보도했다.

이 세 사람 이외에도 한국출신 자원봉사자들이 전시회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차세대 활동가들이 잘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여 몹시 마음이 뿌듯했다.

2014. 9. 통권 191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열한 살의 유서, 스물아홉 살의 꿈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은주 간사가 2014년 10월 12일 KBS 1TV <강연 100℃>에 연사로 초대되어 북한에서의 험겨웠던 삶과 험난했던 탈북 여정, 인권활동가로서의 삶과 꿈을 나누며 전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1990년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었고, 먹을 것을 구하려 먼 길을 나선 어머니와 언니가 돌아오지 않아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열한 살의 나이에 유서를 쓰기도 했다. 다행히 6일째 되던 날 어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딸이 쓴 유서를 보고 말이 없다가 꺼낸 한 마디가 “다 같이 죽자”였다고 한다. 어머니와 언니가 같이 죽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슬프기보다는 기뻐했다고 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절망감에 김 간사 가족은 탈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거리를 떠도는 꽃제비 생활로 1년을 버텨낸 후, 탈북에 성공했지만 중국에는 인신매매라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2002년에는 마을사

람들의 신고로 강제 복송되어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고, 훗날 다시 탈북에 성공한 김 간사 가족들은 언제 또 복송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했고 고생 끝에 2006년 우리 곁으로 올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르 피가로지의 세바스티앙 팔레티 특파원과과의 공저 형식으로 2012년 프랑스어를 첫 출간되었다. 2013년에는 노르웨이에서, 한국에서는 “열한 살의 유서”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2014년에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 내년에는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남한으로 온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은 공부였다. 스물둘의 나이로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해 대여섯 살이나 어린 급우들과도 마음을 열고 잘 어울렸고, 이어 서강대학교로 진학해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시민연합의 ‘한겨레계절학교’ 자원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하나원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공부할 수 있었던 곳이어서 더 각별했다는 것이다. 한겨레계절학교에서 그녀는 후배 탈북청소년들에게 더없이 따뜻한 누나이자 언니였고, 이들의 지난날과 고민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듬는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대학생활 중 미국대사관의 지원으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오면서 그녀는 훌쩍 더 성장했다. 열한 살의 유서를 쓰던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 한없이 감사했고, 북한 주민들과 제3국에서 여전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탈북자들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돕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시민연합의 문을 두드렸고, 교육훈련팀 간사로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방송에서 김 간사의 강연제목은 ‘평범한 삶’이었다.

“제 꿈은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어려웠던 삶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북한에서 제3국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 알리고 지금 한국에 오는 후배들을 도와주는 일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북한주민들이 저처럼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날이 왔을 때 비로소 제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는 또한 우리 사무국 가족들과 시민연합 회원들의 꿈과도 같다.

2014. 11. 통권 193호 머리말 / 사무국장 김영자

탈북청소년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01년부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탈북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지 14년이 되었다. 2015년 1월 5일부터 21일까지는 통일교육원에서 제26회 계절학교를 열어 탈북청소년 25명을 교육했다. 이번 계절학교에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는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여성들한테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11명이나 되었다. 중국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우리말이 서툴러 국어 교육을 특별히 시켜야 했다.

탈북청소년들은 오랜 학습공백으로 인해 공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우리에게 오기까지 짧게는 3, 4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지 못했던 학생은 거의 30살 가까운 나이에 고교 과정의 공부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들은 힘겨운 정규 중·고등학교 과정을 지내거나 대안학교 등을 거쳐 각고의 노력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과목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과 민주시민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수학은 5단계, 영어는 4단계, 국어는 2단계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하여 가르친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6박 17일간 진행되는 교육은 그야말로 강행군이다. 학생들이 다소 피곤해 하기도 하지만 교육이 끝난 뒤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90% 가까이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을 표했고 절반 정도는 다시 계절학교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탈북청소년 가운데는 우수한 학생이 가끔 눈에 띈다. 한겨레계절학교 1기 수료생인 임철군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고, 북한인권시민연합 14축구팀의 일원이었던 이철진군도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역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 앞으로 2년 후면 탈북학생 중에 변호사가 탄생할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앞으로 통일 이후 북한재건 과정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우리의 소중한 인재들이다. 탈북대학생들을 상대로 장래의 포부를 물어 보면 통일이 되면 북한에 돌아가 북한의 재건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 만큼 탈북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자긍심 있는 국민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한겨레계절학교 개교식에서 탈북청소년들에게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황해도 평산 출신이고, 현대 자동차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도 강원도 통천 출신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 5천만 명 가운데 20%인 약 1천만 명은 6·25전쟁 때 월남한 분들이거나 그 후

손들이다. 그러므로 이곳이 결코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번 한겨레계절학교 운영을 후원해 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남북하나재단에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탈북청소년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헌신적으로 교육을 한 자원봉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5. 2. 통권 196호 머리말 / 한겨레계절학교 교장 박범진

먼 길을 돌아 만난 행복한 시작

2015년 1월 24일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강남의 한 교회 예식장에 모였다. 강원철 군과 김은주 양의 결혼식을 지켜봐주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 유난히 북한인권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어린 나이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상황을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든 알리려고 언론과 글,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랑인 강원철 군을 처음 만난 것은 2000년 4월 탈북난민실태조사를 위해 중국 대련을 방문했을 때이다. 무산이 고향인 10대의 강원철 군은 북에서 고등중학교 3년을 중퇴했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여동생과 함께 탈북했는데, 여동생은 탈북하자마자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아홉번이나 잡

혀 북송도중 도망친 적도 있고, 나이가 어려 그냥 풀어준 적도 있었지만, 99년 상해에서 마지막으로 잡혀 북송되어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과 함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농포집결소에서 두 달가량 감금되었을 때 옆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보고, 임신한 여자를 짐승 다루듯 마구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 집결소에서 주소지로 보내질 때 꽃제비 수용소로 보내지는데, 아이들이 담요 끝을 잡고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혼자 말로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삽니다'면서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매어지기도 했다.

2000년 8월 경상대학교 학생 2명(임지영양과 진익환군)과 다시 대련을 찾아 원철 군을 만날 수 있었다. 저녁식사를 위해 걸어가던 중 원철 군이 제 곁으로 와서 손을 잡으며 '어머니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엄마가 되어 주겠노라 약속했다. 우리가 돌아오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원철군이 중국 공안에 잡혀 조사받던 6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받이 홈통을 타고 도망쳤고, 이후 돈을 모아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하나원 교육을 마쳤지만, 미성년자여서 갈 곳이 없어 지낼 곳을 물색하던 중 천주교 수도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고, 일년 반 가량은 윤현 이사장 댁에서 4명의 탈북청소년들과 지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잃어버린 원철 군의 동생을 찾기 위해 임지영, 진익환 학생은 '동생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 동생을 찾는데 도움을 주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 북에 계신 어머니도 모셔왔다. 그 사이 강원철 군은 대학을 마치고,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석사과정에 있다.

신부인 김은주 양은 2007년 1월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계절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터이다. <열한 살의 유서>의 저자이기도 한 김은주 양은 작년 10월 12일 KBS 1TV <강연 100℃>에 출연, 평범한 삶이란 주제로 시작된 강연을 가졌다.(뉴스레터 193호 머리말 참조) 매사에 적극적인 김은주 양은 스물 둘의 나이에 고등학교에 편입했고, 그 다음해 졸업했다. 서강대학교에 합격한 이후 제16회 한겨레계절학교에서는 보조교사로 탈북청소년들의 누나 언니 노릇을 충실히 했고,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 등 시민연합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재발견하면서 남을 도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강원철 군이 한 국제회의에서 '제 고향은 북한의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또한 남한의 서울도 저의 고향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이 부부의 고향은 북쪽과 남쪽 두 곳이고, 앞으로 통일 시대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가족이 탄생되었음이 참 기쁘다.

2015. 3. 통권 197호 머리말 / 사무국장 김영자

이성주 군, 캐나다를 거쳐 영국으로

이성주 군이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온 지 13년이 됐다. 방학 때 열리는 한겨레계절학교 탈북대학생을 위한 리더십캠프, 남북한 출신 청소년 축구팀(L4축구팀) 등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여러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가하면서 내일을 준비했다.

어린 나이(12세~16세)에 북한에서 꽃제비 노릇을 하느라고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건너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온 다음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부산의 지구촌고등학교를 입학하여 좌충우돌하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자신이 통일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수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을 보면 여간 머리가 좋은 게 아니다.

작년(2014년)에는 우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캐나다의 NGO 한보이스가 탈북대학생을 위해 마련한 6개월의 인턴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2014년 12월 하순에 귀국했다.

한보이스의 소개로 이성주 군은 연방 하원의원인 베리 드볼린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캐나다 거주 한인 유지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서병길 밴쿠버 민주평화통일협회장과 김두열 간사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 2015년 5월 8일부터 18일까지 다시 캐나다를 방문하고 한인교회·한인회 모임에서 강연했다.

10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7회 이상의 강연회를 열었고, 관심 있는 분들을 모임을 통해 1만 1천달러(캐나다화)의 성금을 거둘 수 있었다. 특히 큰 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기업가가 탈북동포를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만약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독자적으로 구호금을 건게 된다면 자신들도 같은 금액의 성금을 회사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한다.

2015년 8월 하순에는 이성주 군이 이번에는 영국에 가서 석사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오세혁 군이 영국 정부의 장학금으로 1년간 유학을 다녀온 바 있는데 이성주 군도 똑 같은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필자는 오세혁 군이나 이성주 군을 볼 때마다 곤충들의 탈바꿈(변태)을 연상한다. 곤충의 탈바꿈 가운데 매우 흥미 있는 게 나비의 탈바꿈이라고 하겠다. 나비의 유충은 채소·나무·풀잎을 갉아먹는 해충이다. 번데기가 되었다가 성충으로 탈바꿈한다. 나비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게 호랑나비다. 유충은 호랑나비벌레라고 하는데 건드리면 악취를 풍긴다.

오세혁 군이나 이성주 군이 꽃제비 시절에 구결질이나 도둑질 또는 패거

리를 만들어 영역 싸움을 하기도 한다. 이런 꽃제비가 한국에 와서 세월이 흐르고 마음을 다잡고 나면 검정고시도 치루고, 대학도 다니고 외국유학도 다녀올 수도 있다. 호랑나비가 꽃밭에서 노는 것과 똑같다고 하겠다.

2015. 6. 통권 200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대통령의 탈북청소년 사랑

2015년 9월 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9회 탈북청소년과 동행하는 자선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셨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축하메시지를 대독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대통령의 축하메시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9회 뷰티풀드림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북한 출신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콘서트에서 울려 퍼질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가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크나큰 응원의 박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 탈북 학생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며

“통일된 나라를 꼭 이뤄 달라”고 보내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탈북청소년들이 남북한의 화합과 한반도의 통일을 이끌어 나갈
‘통일의 꿈나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감싸 안고 함께 성장해갈 때,

통일 시대의 문도 그만큼 빨리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탈북청소년들의 교육과 자립, 자활 지원에 힘쓰면서

탈북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탈북청소년들이 아름다운 꿈,

뷰티풀 드림에 도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는 탈북청소년들에게 그야말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다. ‘북한 출신의 우리 청소년들’이라는 말씀만 해도 그렇다.
탈북청소년들의 고민거리 중에 ‘나는 누구인가?’가 있다. 북한인이나 한국
인이나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말이다. 북한을 떠나왔기 때문에 북한인
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서 한국을 선뜻 우리나라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런 탈북청소년에게 대통령께서 ‘북한출신의 우리 청소년’이라고 불렀
으니 탈북청소년이 어찌 용기와 희망을 가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사회가 이들(탈북청소년)을 감싸 안고 함께 성장해간다’는
말씀 역시 그렇다.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겪지 않은 탈북
청소년은 매우 드물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보
살핌이다.

2015. 10. 통권 204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